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더해 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찌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어다

아모스 5장 23, 24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6월 12일 (토) 제 1829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는 현재진행형!

이탈란틱, 공화당 우위/주도 주들에서 공동으로 펼쳐지는 보수입법현상 분석보도

올해 ‘레드 스테이트들(Red States)’에서 투표용지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이는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보수적 입법의 급류에 불과하다. 플로리다, 테네시,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 아이오와, 몬타나 등 공화당이 통제하는 주들은 수년 만에 가장 보수적인 의제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공화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현재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레드 스테이트’ 주들에서 공화당 의원과 주지사는 마치 보수적인 ‘팩스뉴스(Fox News)’ 프라임 타임 라인업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한때 GOP를 정의했던 소규모 정부, 제한된 지출 및 세금방지정책보다는 낙태, 총기, 공공항의나 시위 금지와 같은 일련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사회문제보다 훨씬 덜 집중했다. 이 모두가 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우선순위들이다.

공화당이 통제하는 주들에서는 일부 경제문제까지 보수적인 입김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거의 24개 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 계획에서 올해 초 민주당 의회가 승인 한 실업수당 증가를 거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친 공화당 정책들이 주 의회를 지배했다:

△테네시, 몬타나, 아이오와, 텍사스를 포함한 6개 주가 총기 소유자가 허가 없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오클라호마는 임신 6주 후(여성이 일반적으로 임신을 알기 전)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될 때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도 사실상 완전한 낙태금지령을 통과시켰다. 애리조나는 특정 유전적 조건에 대한 낙태금지를 포함하는 매우 제한적인 법안을 승인했다.

△10개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총



약 24개의 법률을 채택했고, 7개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가 학교스포츠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했다. LGBTQ 옹호단체인 ‘인권캠페인’은 최근 미국에서 “2021년은 공식적으로 LGBTQ 법안의 최악의 해”로 최근 결론을 내렸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연구소(Brennan Center for Justice)에 따르면 5월 중순까지 “14개 주에서 미국인의 투표권을 더 어렵게 하는 조항과 함께 22개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라고 분석했다. 이 또한 ‘대선을 도둑맞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

부분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우회전은 의회와 백악관에 대한 통일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의식적인 반발을 반영한다. 미국 최고의 풀뿌리 보수단체 중 하나(Heritage Action for America)의 전무이사인 제시가 앤더슨은 우익 유권자들이 현재 자신의 대의를 발전시킬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공화당의 의회지도부가 세금과 규제를 삭감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우선순위에 함께 트럼프가 강조한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높이려는 결의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아틀란틱(The Atlantic)은 이처럼 공화당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레드 스테이트들’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보수회귀현상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한다(Watch What’s Happening in Red States: In states where Republicans control the legislature, American life is rapidly changing).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에서 승인된 조치 중 하나는 경찰자금을 삭감하려는 카운티가 먼저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몇몇 레드 스테이트 주지사는 지방정부가 안면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지역 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거나 법률에 서명했다. 플로리다와 테네시는 지방정부 또는 기업이 주민들에게 COVID-19 예방접종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다른 몇 가지 요인들이 이러한 미진에서 우회전을 장려할 수 있다. 보수싱크단체(Heritage Action)에 따르면, COVID-19 첫다운 기간 동안 주 및 지방 정부의 규칙과 제한으로 인해 많은 보수운동가들이 “지방 및 주 정치가 연방 정책보다 일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텍사스 및 약 6개 주에서 교통을 차단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히는 시위자들에게 동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보호가 제공되도록 만들었다.

△테네시, 오클라호마, 텍사스는 미국 역사의 고유한 특징인 인종 문제/차별에 초점을 맞춘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공립학교를 금지했다. △플로리다, 조지아 및 텍사스는 모두 경찰서에 대한 자금을 삭감하는 지방정부를 처벌



소녀를 교육하라, 대나무에 주목하라!

BBC, 지구촌 기후변화 극복' 의의' 방법 6가지 소개

코로나19 퇴치 이외에도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건 아마도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일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구상에는 이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BBC는 연속시리즈로 '지구촌 살리는 39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내용을 가운데 가장 '의의'인 6가지 해결책들을 모아봤다(Six extraordinary ways people are fighting climate change).

1. 소녀를 교육하라

전 세계에 걸쳐 교육을 향상시키는 건 그리 새로운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소녀들을 위한 교육을 진전시키는 건 사회적, 경제적 이익은 물론 기후 변화와 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여학생들이 학교를 더 오래 다닐수록 아이를 나중에 갖게 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만약 모든 소녀들이 중등학교까지 졸업한다면, 오는 2050년에는 현재 예상보다 약 8억4000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인구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물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부유국 시민

들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적다. 하지만 지구상의 자원이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단순한 인구통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업무와 사업,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은 기후보호를 촉진하는 비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들은 여성책임자들이 많을수록 더 나은 기후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보아왔듯이 여성지도자들은 과학적 조언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혜근 목사



푸른초장 홍귀표 목사



팬데믹 시대 엄마와 자녀... 설문 결과 보도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할렐루야 백화점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22회 정기 총회 주제: 회복과 부흥 Recovery & Revival (사40:27-31)

발행인 칼럼

손목이 잘라졌는데



김성국 목사 (렌즈장로교회 담임)

손바닥뼈 두 곳이 부러졌다. 중학교 체육시간 때의 일이었다. 학급 친구들과 줄을 서서 앞에 놓인...

지난 5월 마지막 주일은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러시아권 예배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었다. 그 날 오후 다민족이 함께 모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너무 부끄러웠다.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도 일단 만나면 원망이 앞섰던 내가 아니던가. '고난과 신앙은 같이 가는' 것이라는...

오늘 새벽 카드를 받았다. 지난 주간에 교회를 방문하셔서 처음 보았던 어느 신학교 교수님 내외분이 어제 교회에 맡겨주신...

당파적 주장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현실 본다!

TGC, 브렛 맥라켄의 각종주장 홍수시대에 성경적 지혜로 현실 파악하는 지혜 소개

오늘날 서구문화에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갈등이 반드시 정치적 좌파와 우파 사이에 발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기편의 주장(narrative)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 현실에 맹렬하게...

(미국에서는) COVID-19가 바로 여기에 딱 맞는 사례를 제공했다. 전염병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정치적 주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적지 않은 우파가 존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유대 역할을 하는' 거대 정부의 과도한 권한, 부패한 대형 제약회사, 개인의 자유침해, 정부통제의 수단으로서의 백신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있는데...

지받지 않는 정책과 행동을 계속 수용하고 있다. 운동장 출입금지, 해변 폐쇄, 대면 학습을 위한 학교 재개거부 등이 그것이다. 현실을 향한 감정보다 현실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정보 환경에서 사람들의 주장이 왜 그렇게 흡수력이 좋은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

같은 정보로 가득 찬 세상에서 현실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아예 불가능해 보인다.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가 뇌를 강타할 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깔끔한 주장을 반영하지 않는 정보는 그냥 배제하는 게 모든 증거를 검토하면서 그 증거가 말하는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이미 갖고 있는 주장에 적합한 새로운 데이터만 그때그때 빠르게 연결하는 것은 정보 과부하의 세계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성경은 현실 평가위한 기준과 현실 바로 볼 수 있는 렌즈 제공 각종 주장 쏟아내는 매체 줄이고 소스(성경, 교회, 자연)보도록

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좌파 진영에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결과 그들은 객관적인 현실보다 자신들의 주장과 편견에 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은 무조건 백신 혐오자나 또는 인류 학살을 좋아하는 보수주의자라는 식의 생각이다.

아틀란틱(The Atlantic)에 실린,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진보주의자에 관한 기사인 '폐쇄를 중단할 수 없는 사람들'에서 엠마 그린(Emma Green)은 이렇게 썼다. "COVID-19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증거에 의해서 지

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비추어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장과 분노보다 증거와 논리에 의해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급진파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파적 주장에 빠져있어서 제대로 된 현실을 보지 못한다. 이런 현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교회에서조차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비극이다. 궁극적으로 주관적인 주장이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보다 많은 기독교인이 급진적인 태도로 바른 현실에 올인해야 한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우리는 왜 특정 주장에 빠지는가?

인간은 항상 불편한 현실보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선호하는 유혹 속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본성은 뱀의 이야기를 믿은 하와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창3:1-7). 그러나 오늘날 현대 기술 시대에는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정한 역할관계가 있다. 여기 세 가지를 소개한다.

1. 우리는 차고 넘치는 정보에 짓눌리고 있다(특정 주장은 따라서 더 쉽다)

너무 많은 기사, 연구, 통계, 의견 및 '전문가' 권장 사항과

수 있지만, 이것은 나태한 것이며 심지어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현실은 종종 우리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현실을 바로 파악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힘든 노력이고 인내를 요구한다.

2. 우리는 너무 조급하다(특정 주장은 빨리 알 수 있다)

사실을 수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특정 주장은 빠른 답변을 제공한다. 모든 복잡한 영광(glorious) 속에서 현실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을 요구한다.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는 세계에서 누가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가?

(4면으로 계속)

필렌 교회 및 부지 판매
주정부 정식인가 면세
1.25Acre 부지
General Commercial
80석 성전
프로윈 부동산 Jay Song (213)389-0123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초저장,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Midwest University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 - 4645 / Fax: (636)327 - 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571)730 - 4750 / Fax: (571)730 - 4751
E-mail: wdc@midwest.edu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1면에서 계속) 여기에, 연방대법원의 보수/진보 구도가 6-3으로 굳혀져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국가 차원의 사회정책이 사법적 도전을 견딜 것이라고 더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올해 통과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안으로 보수주의자들이 미시시피에서 승인된 15주 금지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연방대

법원이 Roe v. Wade에 확립된 전국적인 낙태권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수 정책연구단체들(Heritage Action 및 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은 공화당이 조절하는 주들에서 보수적 의제를 추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레드 스테이트들'에서의 정치/입법화 현상에서, 두 가지 패턴이 명확해진다. 하나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호전적, 문화적, 인종적 대립적 정치스타일이 공화당에 따라 보수 정책을 확증하고 있다. 특히, 여러 주에서 역사적으로 공화당의 기반을 구성했던 기업계의 대중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표권 및 사회적 문제(특히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한 제한이 진행되고 있다. 보수적 입법의 급증에서 분명한 또 다른 패턴은 보수와 진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분

리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과반수인 연방 하원에서는 야심찬 진보적인 의제를 추진함에 따라 거의 모든 '레드 스테이트'에서는 집단적 반항으로 대응하고 있다. 백인이 주거하는 농촌과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입법자들이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민주당이 통제하는 대도시 센터의 정책선택을 더욱 공격적으로 무효화함에 따라 국가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녀를 교육하라 ...

(1면에서 계속) 오늘날 많은 자선단체들은 교육에 상당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고 이는 분명 효과를 내고 있다. 전 세계 여학생들의 교육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는 1980년대 39%에 불과했던 여학생들의 중등학교 등록률이 오늘날 거의 70%까지 늘었다.

에 따르면, 이 재단은 1000개의 대나무 마을건설을 통해 토양을 복원하고 탄소를 잡는데 노력을 쏟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정작지들은 약 20km의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이게 되며, 농작물과 가축을 키울 수 있다. 그는 이 아이디어가 다른 9개국으로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라빅은 "종합적으로 이들 마을은 매년 10억 톤의 이산화탄

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건 단순히 환경법만은 아니다. 똑똑한 변호사들은 인권법, 고용법, 심지어 회사법까지 적절히 끌어와 기후변화에 창의적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 지난해 35달러의 주식만을 보유한 어느 투자그룹이 폴란드에 석탄공장이 건설되는 것을 가까스로 막은 적이 있

가스이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이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만으로도 지구 온도를 0.5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지구상에 이미 존재하는 냉장과와 에어컨의 수는 어마어마하다. 대부분의 냉매는 수명이 다하면 재활용과 안전한 폐기가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도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한 냉매 가스를 추적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소를 흡수하고 이를 대기 밖으로 없애줄 것"이라고 말한다.

3. 법은 강력한 무기다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기후전문 변호사들은 더 강력한 법의 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법은 기업과 정부의 환경오염을 막는데 쓸 수 있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최근 네덜란드의 한 법원은 석유대기업인 쉘(Shell)사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에 맞춰 정책을 따라 법적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

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환경단체인 '클라이언트 어스(ClientEarth)'는 폴란드 에너지회사인 '에니아'의 자본과 기업법의 힘을 빌려 석탄발전소건설을 지원하기로 한 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당시 법원은 새로운 석탄 공장을 세우는 건 단순히 불법적으로 나쁜 사업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4. 냉장고 사용을 줄이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냉장고와 냉동고 및 에어컨에는 프레온가스의 일종인 수소불화탄소(HFC)와 같은 화학 냉매가 들어있다. 그러나 절연처리과정에서 나오는 HFC는 지구에 일종의 '위험한 담요'를 생성하고 있다. 사실 HFC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

마리아 구티에레즈는 냉매 가스를 안전하게 다루고 처리하는 회사인 트레이드워터(Tradewater)의 국제 프로그램의 책임자다. 이들은 오래된 창고와 폐기물 처리장을 뒤지며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냉장고를 찾는다. 구티에레즈는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냉매를 찾아다니는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존재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5. 미끄러운 선박을 만들자

세계무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작은 생물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전 세계무역의 90%는 선박으로 운송되는데 이는 인류가 배출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한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이 선박운송에 의존할수록 바다 속 작은 생물인 따개비 등의 조개가 문제로 거론된다. 따개비와 삿갓조개, 홍합이 붙어있는 선박은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선박보다 해양 디젤연료를 25% 더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증가하고 연료비로만 연간 310억달러가 더 쓰이게 된다. 이에 과학자들은 바다 생물로 인한 (6면으로 계속)

시론 진도지코인 - 그거 개 이름입니까?



최해근 목사 (동고메리교회)

요즘 금융시장을 달구고 있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 중의 하나는 '가상화폐'입니다. 지난 2월부턴 급상승한 가상화폐 가격으로 인해 돈을 투자하기만 하면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돈복사' 시장으로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을 선두로 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금지 및 규제정책으로 인해 정신없이 요동치는 가치로 인해 젊은 직장인들, 특히 20-30대 직장인들이 웃다가 울다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곤 합니다. 지난 1분기 동안 가상화폐에 신규 투자한 사람들의 연령을 분석한 한국자료에 의하면 20대가 32.7%(81만6039명) 그리고 30대가 30.8%(76만8775명)로 20-30대가 전체의 63.5%에 해당됩니다.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투기와 신용도 없는 그런 가상화폐 시장에 미치도록 뛰어들고 있을까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학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2009년에 등장한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의 기술을 사용하여 소유권도 증명되고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 화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상화폐가 현실에서 사용되는 곳은 돈 세탁이나 해커들의 부정확한 요구를 들어주는 불법적인 분야들임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화폐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그토록 가상화폐에 목을 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곳 외에 다른 곳에서는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연봉이 인상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속도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런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가격이 너무 높아 투자하고 싶어도 가진 자본이 부족해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적은 금액으로도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상화폐 시장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 가상화폐 시장에 '도지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가 등장했습니다. 이 코인은 2013년 12월에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라는 사람이 가상화폐를 조종하기 위해 장난삼아 만든 것이었는데 그해 2021년에 들어와서 4,600% 이상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2020년 0.002달러(0.2센트)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5월 22일 34,444전에 거래되었습니다. 무려 17,222배 오른 셈이지요. 10불 투자했으면 172,220불이 되니 젊은이들이 직장보다 가상화폐에 미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도지코인이 마스코트로 일본의 시바견을 사용한 이후 개코인이 시장에 우후죽순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 일본의 시바견에 대하여 한국의 진돗개를 마스코트로 한 '진도지코인(Jindogecoin)'이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자체 홈페이지도 만들고 암호화 폐거래소에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홍보를 하며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시작해 무려 1,000조개의 진도지코인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을 발행한 이틀 뒤인 5월 13일, 개발자들은 한꺼번에 시장에 175조개의 코인을 처리한 후 잠적했고 해당 웹사이트는 사라졌고 코인은 무려 97% 급락했습니다. 발행자들은 26억원이라는 돈을 챙겨 잠적했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일확천금을 노리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돈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단돈 50만원만 있으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백서제작에다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 불쌍한 세상입니다.

어느 시대나 돈에 대한 집념과 사랑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노력 없이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법의 보호, 즉 합법을 가장하여 훔치려는 시도가 공개적으로 일어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투자라는 명목으로 인정해주는 문자 그대로 돈이 주인공세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땀 흘리며 신앙인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더 그리워집니다!

살림! hankschoi@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담임목사 청빙 공고
대흥장로교회는 미국 Los Angeles지역에 위치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서 1977년 창립한 이후 43년 동안 분열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꾸준히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 최근 설교 동영상 2편, 자기소개서(목회소명/목회경험/신앙고백/성장배경/사모소개와 가족사진)
제출 마감일: 2021년 7월 22일
제출처: application.dkpc@gmail.com

주님의영광교회 Youth 사역자 청빙
LA 주님의영광교회에서 Youth 사역자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Qualifications: 1. Graduate or currently enrolled in seminary. 2. Based on English Ministry (Korean Language Preferred) 3. Youth experience preferred 4. Must be able to legally work in the USA
Application: 1. Resume including family relationship 2. Personal Testimony 3. References from the previous church 4. Please attach Personal or Family Photo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현충일을 기다리면서...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데이로, 한국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하여 순국선열들을 기념한다.

1862년 미국 남북전쟁 때 해리스버그에서 남군과 전투를 치른 북군의 중대장 엘리컴(Ellicombe) 대위는 어두운 밤, 숲 속 어디선가 들리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는 남군의 어린 병사에게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대위는 랜턴을 켜서 그 병사의 얼굴을 비추보았다. 그 순간 엘리컴은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그 죽은 어린 병사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남부에서 음악공부를 하던 아들이 아빠와 상의도 없이 남군에 입대하여 아버지 앞에서 죽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포켓을 검사하다가 악보가 그려진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다음날 상관에게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군악대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적군의 장례에 군악대까지 동원할 수는 없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비록 적군이지만 아들을 잃은 엘리컴 대위를 위로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군악병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락했다. 엘리컴은 그 한 명의 트럼펫터를 택하여 아들의 악보를 연주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한국말로 '밤하늘의 트럼펫'으로 알려진 '진혼곡'은 잠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160년이 된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의 병사들의 고된 하루를 마감하며 평안과 안식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서 취침 나팔소리로 퍼지는 트럼펫 솔로 곡이 바

로 엘리컴 아들이 만든 음악이었다. 이 트럼펫 솔로는 지금도 조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 산화한 병사들의 유해가 안장되거나 봉안할 때 연주되는 장의용으로 연주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한다. 더 이상 죽은 자들을 위한 슬프고 외로운 트럼펫 연주가 그치고 그 대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공중의 나팔소리를 기다려야 한다. 언제 누가 이 생명의 나팔을 불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 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데살로니가전서 4:16-18). 각 나라를 지키려고 산화한 병사들의 삶을 기리는 6월의 호국의 달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을 바쳐 세계 평화를 갈구하며 슬픔을 달래는 가족들 모두에게 이제 곧 울려 퍼질 공중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남은 자들도 영접하시는 주님의 나팔소리가 속히 우리 곁전에 울리는 그날을 학수고대해 본다. 메모리얼데이를 보내고 현충일을 기다리면서...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홍기표 목사
(다민교회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노예로 얽매어있던 애굽에서 벗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했고 앞은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 막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도 절망적인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절망적인 위기를 극복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해온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그들의 리더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0-12절).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런 위기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위기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13-14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산다고 하여도 위기는 닦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통해 온전히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위기는 제정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들이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단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케 할 길을 여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

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첫 번째 말씀은 "앞으로 나아가라"(15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 대책도 없이 홍해 바다로 전진해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으로 절대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자유를 찾는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는 길

출애굽기 14장 10-22절

의 백성들로서의 신분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노예 신분으로 부러도 해방을 주셨습니다(출12:21-42).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마귀와 죄의 노예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해주셨습니다(엡1:7). 그리고 이 해방 속에서 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믿기 전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눅9:59-62; 롬

6:16-18). 돌아간다고 위기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더욱 비참한 삶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믿기 전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우실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우실 때 그들에게 애굽의

쓰셨습니까(요2:1-11). 양식이 없어 배고픈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찾을 수 있었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요6:1-15).

우리의 절망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때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아오라고 하시거나 도저히 하기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라고만 하십니다. 신명기 30:11-14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르기를 누

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적이 필요할 때 없는 것을 찾으려 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을 가지

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위기가 없는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위기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위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위기와 위기의 극복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16-1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닦친 절망적인 위기를 기적적으로 극복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시편 50:15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위기 극복 자체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esfcross@yahoo.com

당파적 주장에서 벗어나...

(2면에서 계속)

현실을 특정 주장으로 깔금하게 바꾸는 선택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주장을 팔고 있다.

뉴스 속보가 발생하면 특정 주장을 양산하는 기계들이 작동하며 새로운 '증거'를 기존 주장 속에 포함시킨다. 2016년 펄스(Pulse) 나이트클럽에서 학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은 즉시 동성애 혐오 주장 속으로 편입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는 그런 프레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수년에 걸쳐 위세를 떨치던 '동성애혐오 증오범죄'라는 주장이 와해되었다. 너무도 빠른 뉴스 주기 속에서 사는 우리는 잘못된 주장을 수정하기 위해 오래된 뉴스를 검색하지 않는다. 일단 어떤 주장이 집단적으로 채택되면 사실과 상관없이 후대 사람들에게 그 주장은 '현실'이 된다.

3.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다(특정 주장은 그런 우리를 만족시킨다)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보다 특정 주장을 더 중시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바로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죄 많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정 주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 맘대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통제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저항한다. 죄인 된 우리는 현실이 우리에게 아무리 틀렸다고 말해도 나 자신에게 '옳다'는 느낌을 주는 특정 주장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특정 주장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존 편견을 확고히 하고, 내가 가진 견해의 정당성까지 확신시키는) 특정 주장을 담은 뉴스는 잘 팔리기 마련이다. 게다가 내가 믿고 싶은 뉴스만 더 많이 보게 만드는

알고리즘은 우리를 소셜 미디어에 더 중독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해당 광고주에게 더 많은 돈을 벌도록 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악순환이지만, 그럼에도 기분을 좋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부인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이런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자아 밖에 존재하는 진리를 향한 겸손한 복종만이 우리를 특정 주장으로 왜곡된 거품과 교만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넘어 진리로

나는 뉴욕타임스의 전 칼럼니스트인 바리 와이스(Bari Weiss)가 서브스택(Substack) 뉴스레터 창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을 보고 감탄했다. "이 뉴스레터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다. 어떤 팀이나 특정 집단의 안락함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뉴스레터다."

어떤 팀이나 특정 집단의 안락함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으라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문화적, 정치적, 개인적 주장이 주는 편안한 애착을 포기할 때에만 가능하다.

교회는 각종 주장이 난무하는 세계에서 바른 현실을 가장 분명하게 옹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에게 진리의 기초(성경)와 해방의 진리(예수)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하고도 진정한 주장이다. 성경의 주장은 현실을 뒤집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렌즈를 제공한다.

내가 작년에 '에코 챔버를 탈출하라. 지금은 설득할 때다(Exit the Echo Chamber. It's

Time to Persuade)'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파가 아니라 선지자다(We Need Prophets, Not Partisans)'에서 주장했듯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당파적 권력이나 집단 내 지위를 요구하기보다는 초월적인 진리를 위해 싸워야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면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현실보다는 특정 주장을 더 강조하고 있고 또는 특정 주장이 그들이 인식하는 현실을 결정하도록 만들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권을 찢어놓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쓴 '지혜의 피라미드(The Wisdom Pyramid)'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각종 주장을 쏟아내는 매체(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현실 속에 뿌리박게 하는 소스(성경, 교회, 자연)에서 보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월적이고, 시간을 통해

검증되고 손에 잡히는 진짜 현실을 보라는 것이다.

성경과 기독교 전통 안에는 각종 주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현실이 뿌리만도록 하는 충분한 자료가 담겨있다. 지혜를 형성하는 자원에 시간을 쏟자. 트럼펫 탄핵과 같은 음모론에 쏟을 시간을 성경에 쏟도록 하자. 스쳐 지나가는 잡담 같은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교회가 2000년 동안 쌓은 전통으로 나 자신이 만들어지도록 하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헛되고 추상적인 유혹을 떨쳐내고 창조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물학 속에서 나 스스로를 제한하도록 하자.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현실은 내가 만들고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헛된 주장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을 준다. 기독교인이여, 헛된 주장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자.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LGBTQ 금지의 달' 아직도 문화로만 본다면..

LGBTQ PRIDE 행진 뒤배경

벌써 수년 동안 매년 6월이면 LGBTQ 생활방식이 "정상이고 좋은 것"이라고 알리기 위한 축제를 하는 '동성애 금지의 달(Pride Month)'이 찾아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권력 행사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서부터 지난 10년간 미국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모든 생활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란 안타깝게도 성경적이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변화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법과 창조질서법칙을 강렬하게 대적하는, 오히려 사탄이 기뻐하는 문화로 변하고 있는 참혹하고 심각한 현실임을 직각하고 날카롭게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LGBTQ Pride 행진 행사에는 크리스천 단체, 교회들도 있습니다.

"God is Love & Love is Love" "God loves LGBTQ" 라는 팻말을 들고 LGBTQ Pride 행사 속에 섞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죽을죄임을 분명히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자들을 전도하여 진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장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으로 인정하며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새롭게 들어온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오바마 시절에 못다 한 SOGI 정책을 미전역으로 다시 확장시켜 6월의 LGBTQ Pride 행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래와 같은 행사에 노출(expose)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는 매년 했던 행사들에 참여한 관중들을 뛰어넘어, 그들의 목표물이 어른에서 아이들로 확장되었다는 무서운 사실을 아시나요? 그동안 동성애 커플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동성애인권운동가들이 아이들을 이 행사들에 참여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돈 욕심,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러나? 아이들이



대상으로 한 LGBTQ Pride 상품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SOGI를 상품화하는 기업들을 보이듯 하세요!

또한, LGBTQ 지지를 정치정당(민주당 Political Platform)에 까지 적어놓은 정치인들과 손잡은 모든 기업, 문화, 엔터테인먼트들은 이맘때면 잘 알려진 상표의 주류 회사들이 '금지'의 달 행사에 참여해서 특별홍보 상품들을 내놓는데, 이번에는 이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한 동성애 상품, 엔터테인먼트 등을 무분별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 십대자녀들이 주로 보는 잡지인 Teenvogue에 의해 뽑힌 첫 번째 LGBTQ 회사는 다름 아

닌 스타벅스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단체와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스타벅스의 반기독교적인 기업방향으로 인해 보이콧 한지 오래 됐습니다.

2. 아이들이 좋아하는 LEGO 장난감에도 동성애 무지개를...

지난 5월 20일 아이들을 위한 블록 장난감을 만드는 대표적인 덴마크 회사 '레고(Lego)'는 LGBTQ+를 주제로 한 새로운 장난감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래와 같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Lego같이 어린이들이 주 고객인 회사가 LGBTQ '금지'의 달을 선전하



는 상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라고요.

원래 Lego는 덴마크 말로 "leg godt" 즉 "잘 놀도록..."이란 뜻을 가진 아이용 블록과 형상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LGBTQ 금지의 달을 기념하고자 얼굴도 없고, 성별도 없는 형상으로 'LGBTQ 금지'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로 상품을 만든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아이들 용으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성교와 성적체성에 대한 혼돈, 얼굴에 이목구비 없는 인형... 이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웃음보다는 무서움을 줄 수 있으며 성별에 대한 혼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가 더 조사해보니 LEGO 회사는 이전부터 조금씩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에 가담하여 정치적 젠더방향에 반기독교 좌파 정치인들과 같은 배를 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자가 직접 설명해주고 있는 영상 참조(https://www.youtube.com/watch?v=JD0sSiGT_t8).
더 나아가 LEGO는 이런 상품에서 얻은 이익금을 LGBTQ 단체들에게 기부금으로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해보니 LEGO 회사는 이전부터 조금씩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에 가담하여 정치적 젠더방향에 반기독교 좌파 정치인들과 같은 배를 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자가 직접 설명해주고 있는 영상 참조(https://www.youtube.com/watch?v=JD0sSiGT_t8).

더 나아가 LEGO는 이런 상품에서 얻은 이익금을 LGBTQ 단체들에게 기부금으로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디즈니 이번에도 또 실망스러운...

저희 단체와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디즈니사의 모든 상품, theme park도 보이콧합니다: <https://www.gaytimes.co.uk/culture/disneyland-made-history-first-ever-magical-pride-parade/>

디즈니 같은 대규모의 회사를 더 이상 가족테마파크로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수년전부터 돈을 탐내는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명목으로 무지개 디즈니특선품을 '동성애 금지의 달' 상품으로까지 출시한지 몇 년째 되었습니다.

디즈니의 대표적인 Pixar, Marvel, and Star Wars에서 나온 주인공들에게 무지개 의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이러한 LGBTQ+ 상품 판매에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LGBTQ를 지원하는 반기독교적인 인권단체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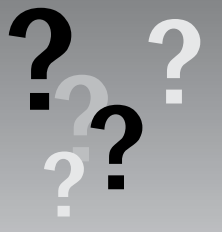
참고로, 디즈니는 회사적으로 또는 회사원들 중에도 Child Porn 비디오 영상들을 판 것으로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여럿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 것을 "선"이라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Tvnext.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염소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소는 희생을 상징하고 양은 온유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염소는 싸우기를 잘하고 들이 받고 별로 좋은 상징성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제물로 썼는지요?

- 하버에서 이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소와 양과 염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이 짐승들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사람들과 가까운 짐승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짐승입니다. 둘째는 대부분이 온순한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동물들입니다. 소는 힘과 근면 희생을 상징합니다. 평생 사람을 위해 근면히 일하고 나중에는 자기 고기까지 바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소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양은 온유와 순종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으로 비유하셨고 이사야 53 장에는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고난도 조용히 순종하셨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죄와 허물, 수치를 대신해 희생당하는 짐승으로 염소 사용

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염소라는 짐승은 양을 닮았지만 싸우기 잘하고 음란한 짐승의 상징인데 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저도 과거에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수치와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대신하여(substitute) 희생당하는 짐승으로 염소를 사용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들은 그 제사의 성격에 따라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를 낳은 여인들이 드리는 성결예식으로 드리는 제물은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양이나 비둘기였고, 번제나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은 숫양이었습니다(레23:12, 18, 19). 그리고 제사법에서 속죄제나 기타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로 언급되는 동물로는 단연 염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모든 수치와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짐승이었기에 염소를 제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레4:23-24).

그리고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속죄제의 제물로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한 마리는 죽어서 그 피를 지성소에 자비석에 뿌렸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의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 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레16:9-10).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com

교회단체 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형포도

내 고장 칠월은/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면대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

고/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새 그를 맞아 이 포

도를 따먹으면/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으련/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련.

나처럼 한국에서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한 분들이라면 이옥사 시인의 '청포도' 시가 국어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모두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고, 희망차고, 싱그러운 시를 온전히 음미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 시에 나오는 시인이 말하는 '손님'을 추측할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①시인이 사랑하는 여인 ②학문을 통해 얻은 진리 ③광복을 맞은 평화로운 세상 ④시인을 감옥에서 석방시켜 줄 사람 ⑤

때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지만 이번 여름은 확실히 다른 세상이 올 것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 다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시인의 마음처럼 온전히 기쁘고, 흥분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시인처럼 철저히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세상을 함께 기대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으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동지가 된다. 이 동지에는 시련을 함께 이겨낸 자들로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며, 성숙함을 동반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는 많은 면에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성경에서 '포도'와 '포도주'는 여러 말씀에 비유로, 기적으로, 선포로 사용되어 우리에게 은혜와 깨달음을 준다. 특별히 성찬예식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나타낸다.

여름의 시작인 6월! 팬데믹으로 단절되었던 많은 모임과 만남이 교회 안과 밖에서 시작되는 이때, 주님의 보혈을 받은 자로서 은쟁반에 모시수건을 준비하는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모든 손님들에게 청포도향기를 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대선 첫 경선지 네바다 도전

수십 년간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의 초반 풍향계로 주목받아온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주가 다른 주의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백인 위주의 인종 구성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네바다주 의회는 2024년 대선 경선을 2월 첫 번째 화요일에 프라이머리로 개최하는 법안을 1일 가결했다.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네바다주는 미국에서 경선을 가장 빨리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양당 모두 아이오와주 코커스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로 대선 경선 일정을 시작해왔다. 하지만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는 인종적 다양성이 낮아 제대로 된 여론을 대변하지는 못하면서 경선의 출발점이라는 이유로 영향력만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4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바이든은 이후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2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세를 회복했다.

제이슨 프리슨 네바다주 하원의장은 "서부 지역에서의 처음이 아닌, 국가적 다양성을 고려해서 네바다주가 제 자리를 가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네바다주는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경선 방식도 당원만 참여하는 코커스 대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로 바꿨다. 다만 네바다주의 의지에도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양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미시간주와 플로리다주가 프라이머리를 전국위원회 동의 없이 '슈퍼 화요일' 전으로 앞당겼다가 대의원 투표권이 절반으로 삭감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네바다주 지구당은 "양당 전국위원회에서 경선 결과를 무시당할지 모른다"며 제도 변경에 반대했다.

또 뉴햄프셔주는 법률로 대선 프라이머리를 다른 주의 어떤 선거보다도 7일 먼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레이 버클리 민주당 뉴햄프셔주 지구당 위원장은 "우리는 프라이머리를 수십 년간 지켜왔고 그 정당성은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도쿄올림픽 나서는 성전환 역도선수

트랜스젠더로는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한 뉴질랜드의 역도 선수 로렐 허버드(43)를 향한 경쟁 선수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남성으로 태어난 허버드는 2013년까지 남자 역도 대회에 참가해왔다. 이후 성전환 수술로 트랜스젠더가 된 후 여성 스포츠인과 경쟁하게 됐다.

허버드와 같은 체급 경쟁자인 벨기에 선수 반 벨링겐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규칙 때문에 다른 사람들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논란이 된 허버드는 2015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규정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 IOC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선수가 경기 참가 전까지 최소 12개월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정 수치 미만일 경우, 여성으로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지침에 대해 이미 완성된 뼈와 근육의 밀도 등 남성으로서 사춘기를 겪은 성전환자가 가진 생물학적 이점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경쟁 선수인 반벨링겐 역시 "이런 희귀한 사례를 연구할 때 (IOC 등이) 비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예선에 참가한 선수 등 일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버드의 출전에 불만을 가진 선수는 타국 경쟁선수만이 아니다. 동료이기도 한 뉴질랜드의 또 다른 여자 역도 선수 역시 현지 언론인 TVNZ와 한 인터뷰에서 "다른 여성 역도 선수들이 내게 다가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평등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허버드는 도쿄올림픽 출전을 공식 선언하지 않았으나 출전권을 얻게 되면서 참가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사우디, 모스크 확성기 제한조치에 국민분열

이슬람교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슬림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모스크의 확성기 사용을 최근 제한하면서 국민들이 분열하고 있다고 1일 BBC가 보도했다.



모스크의 확성기는 무슬림들이 하루 다섯 번 기도할 때 이를 알려주는 신호다. '아잔'이라고 하는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모스크마다 코란을 낭독하는 등 때를 알려준다. 또 공식 예배가 있는 금요일에는 확성기로 이맘들의 설교를 모스크 밖 주민들에게 생중계한다. 이 때문에 무슬림조차 확성기 소리가 시끄러워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의 종교 담당 부서는 지난주 사우디 내 모든 확성기 소리를 최고 볼륨의 3분의 1 수준으로 맞추라고 발표했다. 담당 장관인 압둘라티프 알 세이크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 내 모스크는 9만 8000여개에 달한다. 이들 모스크에서 매일 들리는 확성기 소리는 외부인에게는 소음이자 성가신 소리에 해당한다.

사우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보수적 무슬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SNS에 해시태그(#)를 달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적 무슬림들은 코란 낭송 소리보다 레스토

독살이를 하는 동안 뱀지 못한 어머니.

이 문제와 답이 먼저 기억난다. 정답은 3번 조국의 광복이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어도 나 일론 교복에 땀이 줄줄 흐르던 고3 여름 청포도 문제를 풀며, 식탁위에 올린 반짝이는 은쟁반에 담아온 하얀 모시수건을 상상하며 잠시 시원했던 것 같다.

2021년 여름을 앞두고 온 세상이 마치 광복을 맞듯이 코로나가 끝난 새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하다. 백신접종이 많이 진행되자, CDC는 마스크 의무화도 많이 완화했다. 아직 미접종 자녀들이 많은 이

는 수백억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매미 섭취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팬데믹 끝났다" 노르웨이,이스라엘

노르웨이의 코로나19 대응 책임자가 팬데믹 사태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다. 전국적인 확산세는 큰 틀에서 잡혔으며 소규모 지역 감염에만 잘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인구밀도가 낮아 코로나19가 비교적 더디게 확산됐을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응도 효과적이어서 피해를 최소화한 국가로 평가된다.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스라엘은 마지막 남은 방역 수칙인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이달 중순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자리수까지 떨어지는 등 확산세가 완전히 잡혔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레벤 아비스트랜드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 전염병센터장은 6일 트위터에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지난해 여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게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로써 팬데믹은 끝났다"고 밝혔다.

아비스트랜드 센터장은 노르웨이 일간 VG와의 인터뷰에서 "노르웨이는 팬데믹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빼앗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향후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르웨이는 유럽 전체에서 코로나19 감염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는 데다 인구밀도도 낮았던 덕분이었다. 특히 노르웨이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나타날 때마다 과감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아비스트랜드 센터장은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급감한 원인으로 백신 접종을 꼽았다. 그는 향후 노르웨이에서 소규모 지역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보건 당국은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르웨이 국영 NRK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산발 진화에 비유하자면 큰 불길에 잡혀서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을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곳저곳에 잔불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학교를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율리 에텔스타인 이스라엘 보건장관은 이달 15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됐던 의료진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감염율이 가장 높았던 5개월 전 일일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었지만 여제는 고작 4명에 불과했다"며 "예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 우리가 해냈다"고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 보건 당국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학교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수칙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랑이나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금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 무슬림들은 확성기 소리 때문에 자녀들의 수면이 방해 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셰이크 장관은 말했다. 그는 TV에 출연해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밤 이 기도 시간을 알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확성기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향해 '왕국의 적들'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자극하고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한 조치는 사우디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가 추진 중인 '더 자유롭고 덜 종교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LA, 코로나에 공작새 급증

새벽녘부터 들리는 기괴한 울음소리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에 급증한 공작새가 내는 소리다. 은퇴하자 캐서린 투틀(68)씨는 이런 울음소리가 불만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토로했다.



투틀씨가 사는 패서디나 지역이나 산 가브리엘 등 지역에선 자유롭게 배회하는 수백 마리의 공작새를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개체 수가 늘어났다. 먹이를 찾느라 주택 마당을 침범해 조경을 망쳐놓고, 지붕에 올라가 괴성을 지르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수컷 공작새는 자동차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경쟁자로 착각해 부리로 쪼아 공격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공작새는 한국의 민폐 새 '닭둘기'(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비둘기를 비꼬는 말)처럼 됐다.

WP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미친 영향으로 분석했다. 공작새는 번식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공작새를 인근 가금류 농장으로 옮기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조류에 발생하는 뉴캐슬병 바이러스가 퍼져 지난해 캘리포니아 남부 가금류 산업이 멈췄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활동가들의 업무마저 차질을 빚었다. 결국 '자유'를 얻은 공작새의 번식이 폭발한 것이다. WP는 지난 1년간 야생 공작새가 얼마나 번식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6일 보도했다.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사냥에 나섰다. 독극물 미끼를 놓고, 총을 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화가 난 주민들은 도로에 나온 공작새를 차로 치려고 돌진하기까지 한다고 WP는 전했다. 반면 공작새의 이색적인 자태를 좋아하는 일부 주민은 이를 축복이라고 여겨 지역 내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LA 카운티는 공작새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8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를 거르면 1000달러 벌금형이나 6개월 징역형에 처하는 아카디아사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해 실효성이 낮다.

최도나 다운타운 아카디아 개선협회 상무는 "전염병 기간 인간의 활동이 줄면서 다양한 야생동물 활동이 포착되는 건 전국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 등은 최근 워싱턴DC 뿐만 아니라 미 동부 지역 대부분에 매미 떼가 덮였다고 3일 보도했다. '브루드 X'라는 이름의 매미는 17년 주기로 나타난다. 미 당국은 올여름 동부 지역에 나타난 매미 떼가 수십억, 많게

소녀를 교육하라 ...

(3면에서 계속)
탄소배출량 증가를 줄이기 위해 선박을 더욱 미끄럽게 만들기 위한 기발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특수 자외선 페인트부터 소규모 전기염소처리, 선체손질로봇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결국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이다. 선박 표면에 바다 생물이 붙어 문제가 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사람이 치석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를 닦는 것처럼 선박을 친환경적으로 유지하

는 것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6. '슈퍼쌀'을 만들자

혹시 벼 재배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사실 쌀은 비행기만큼이나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현재 우리가 먹는 쌀의 대부분은 물이 많은 논에서 재배되며 잡초 제거도 이뤄진다.

그러나 재배에 사용되는 물은 메탄을 생산하는 박테리아의 번식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면서 결국 산소가 토양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다. 메탄은 1kg당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더 많은 지

구 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일종의 '쌀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은 물이 흥건한 논 대신 마른 논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물을 절약하고 농부들을 돕는 동시에 메탄 배출을

줄이고 있다.
현재까지 과학자들은 국제 쌀 연구소에서 650종의 새로운 쌀 품종을 연구했고, 최고의 품종을 이용해 재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소비하는 쌀 대부분은 이처럼 메탄이 훨씬 덜 발생하는 방식으로 재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23. 임준기(1883-1954)

임준기(林俊基)는 1883년 9월 21일에 한국 평양 인근 용강에서 태어났다. 1925년 8월에 상해대학 전기과에서 공부한 임준기가 그의 동생이다. 임준기는 1899년 11월 18일에 고창 사람인 임광명과 결혼한 후 22세가 되던 1905년 5월에 하와이 노동 이민자의 대열에 합류하여 아내와 딸 보배(마조리)와 함께 일본 나가사키에서 출발하여 하와이 호놀룰루에 입항했고, 곧 상항을 거쳐 리버사이드로 이주했다. 리버사이드에서 모친상 소식을 들었던 1906년 6월 말에 아들 준이 태어나 희비가 엇갈렸다.

100여 명이 거류하는 곳이라. 연전부터 한 미 이민교회가 있어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거나 그 곳(나성)은 지방이 넓고 또 한 많은 교우가 한 곳에 모이기 불편하므로 여러 교인들이 염려할 때 상천의 도우심으로 지난 동지날부터 또 한 교회가 조직되었는데 미국장로교회 목사 프리차드씨가 우리 한인 교우들을 사랑하여 자기의 예배당 한



임준기



클레아몬트 한인장로교회

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을 섬긴 임준기의 목회를 상상할 만하다. 1907년 1월 2일에 학교가 개학하면서 확인한바 한인 학생이 14명이었고, 한인 야학생이 11명이었다. 이 중에 여러 명이 본 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그해 3월에 김경관, 한주선, 김경선, 박응빈, 허 학, 최봉술, 이경준, 정창렬, 구두식, 박성준, 오봉두, 김춘만, 이현승, 이경조, 양사익, 이인식 등 16명이 나성으로 이주하였다. 이 중에도 얼마는 임준기가 섬기던 장로교회에 출석했을 법하다. 1907년 5월 11일에 공립협회 총회장 송석준을 위한 추도식을 열고, 그가 한인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했던 시종을 기렸는데 공립협회 일반 회원들은 땅극 애송하였다. 이튿날 오후 2시에 나성 뒷산에서 하관예배가 있었는데 70여 명이 참석하였고, 백인이 남녀 8명이었으며, 마차 15대가 뒷산에 '나성교회' 이름으로 부조한 백경태, 염세우, 이관식, 조태운, 한형식, 이종찬 등 6명이 본 교회 교인으로 보인다. 1907년 6월 21일 자 공립신보는 '장

고 한다. 이는 노회가 주관한 나성한인장로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고 보인다. 임준기의 나라 사랑은 특별했다. 그는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1905년 4월에 도산 안창호, 송석준, 이 강, 정재관과 함께 1903년 9월에 조직한 상항친목회를 확대하여 공립협회를 창립하였고, 공립협회의 공식 신문인 '공립신보' 창간에 협력했다. 1907년 1월에 그는 을사늑약을 통하여 일제의 보호국 체제하에 있는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하여 비밀 경사대인 대한신민회를 창립했다. 고종이 이상설, 이위중, 이준을 특사로 보내던 그해 7월에 임준기는 나성지방회 회장으로서 위영민, 강영대, 정등업을 특별위원으로 선정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한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하여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독립권 보호를 추진했다. 1909

6월에 딸을 출산했고, 9월에는 부인이 낙산하는 사고가 있어 희비가 엇갈린 해였다. 1915년 11월 말 보고에 따르면 옆랜드 한인장로교회에 무보수 사역자가 2명이나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중의 한 명이 임준기일 수 있다. 그해 세례교인은 37명이었고, 평균 주일예배 출석수는 16명이었으며, 평균 주일학교 출석수는 22명이었고, 한해 총 헌금액은 57달러 67센트였다. 이듬해 6월에 옆랜드에서 딸 헬렌이 태어났다. 1920년 3월 15일에 백인 옆랜드장로교회는 임준기 부부를 위시하여 한인 52명을 교적부에서 지웠으므로 그 이전에 옆랜드를 떠났던 것이 분명하다.

월로즈 감리교회

1919년 4월, 임시정부 조직 경축회가 북가주의 맥스웰에서 있었을 때 임준기가 지방회 회장이었으므로 그의 맥스웰 이주는 그 이전이다. 그 후 그는 월로즈로 이주했고, 1920년 2월 21일 오후 8시에 월로우스 지방회를 조직하면서 그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해 4월에 아들 리차드가 태어났고, 그해 9월 26일에 임준기는 그의 부인과 딸 보배와 아들 준이 백인교회인 월로즈감리교회에 등록했다. 그들의 등록번호는 443번부터 446번까지였다. 그해 임준기는 마춘봉과 함께 2,200에이커의 벼농사에 실패하였으나 이듬해 다시 희망을 품고 김중림 등과 함께 벼농사를 계속했고, 1923년에도 300에이커의 벼농사를 했다. 임준기와 그의 가족은 1924년 6월에 나성으로 이주하였고, 나성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하였는지 나성 한인장로교회에 출석하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교회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듬해 7월에 셋째 아들이 목에 탄실이 있어 수술하였지만 사망하여 큰 슬픔을 맞았다. 그러나 임준기가 한인 아동교육기관 기성발기에 참여했을 때인 1930년에 딸 임혜실이, 1932년에 딸 헬렌이 팔리중학교에서 각각 우등으로 졸업하였고, 아들 피터는 자동차 뒤에 다는 트럼프크스 물건 배달 스텐을 발명하여 발명가로 이름을 날려 위로를 받았다. 템플 스트리트에 작은 식물상점을 운영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던 임준기가 1941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였고, 1954년 2월 6일에 향년 71세로 나성에서 소천하여 인근 앤젤러스 로즈데일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나성한인장로교회 예배 인도, 나성센트럴장로교회 한인예배 시작 상항공립협회 시작 공립신보 발간, 월로우스지방회 조직 등 애국

미국 북장로교 나성센트럴장로교회는 1906년에 580명의 교인을 가진 대형교회로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본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오거스터스 B. 프리차드 목사는 나성에 한인감리교회가 있었지만 나성이 넓어 이곳에 거주하던 100여 명의 한인이 한곳에 모이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나성한인장로교회를 조직하였다. 이때 임준기가 장원근과 황사용과 함께 나성한인장로교회 예배 인도자로 선임되었다. 임준기는 장원근과 황사용과 함께 프리차드 목사가 시무하던 나성 센트럴장로교회의 방 하나를 얻어 한인예배를 시작했다. 한인 30여 명이 한 주일에 두 번 모여 예배드렸다. 예배뿐만 아니라 야학을 설치하여 센트럴장로교회 교인들 교사로 초빙하여 15명가량의 한인이 매일 밤에 모여 영어를 공부하였다. 1907년 1월 7일 자 공립신보에서 당시의 상황을 읽을 수 있다.

방을 빌려 한 주일에 두 번씩 한인끼리 예배하게 하였으며 또한 그 교정에서 밤마다 야학교를 열고 일심으로 한인을 가르치는데 야학생이 15명 가량이요 예배하는 교인이 30여 명에 가까운데 그 한인교회를 인도하는 이는 장원근, 임준기, 황사용 삼 씨라더라."

임준기의 목회기간 최초의 환자는 김해준과 이태범이었다. 그들은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1907년 1월 초에 상항에서 나성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박영순이 경영하던 여관에서 머물면서 치료한 지 20여 일이 되었으나 차도가 없었다. 그동안 가진 돈을 다 써버린 바람에 수중에 한 푼도 없었. 이 소식을 들은 상항지방회가 그들에게 3달러를 기부했고, 나성지방회도 3달러를 그들에게 기부했다. 그 후 김해준은 차도가 있었으나 이태범은 병세가 위중하여 공립병원에 입원

교신설'이라는 제하에서 "로스앤젤리스 미국 당로교회에서 한인교우를 위하여 새로 미션을 설립하였는데 조사방화동씨가 주창한다더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임준기의 나성 한인연합장로교회 사역은 1906년 12월부터 1907년 6월까지 약 6개월이었다. 본교회는 오늘날의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된다. 그런데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70년사'는 나성한인장로교회의 창립에 관한 다른 정보를 주고 있다. 1906년 초에 상항에 있던 방화중 전도사가 나성에 거주할 때 평양신학교 교장 마포삼일 목사가 안식원으로 귀국하여 방 전도사를 만났고, 이들이 미국 북장로교 나성노회를 방문하여 본 노회의 주선으로 프리차드 목사가 주관하여 나성 시내 병커힐 2층 사가를 얻어 1906년 5월 10일 주일에 18명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년에 그곳에서 임준기의 가정에 아들 피터가 태어났다. 대한민국민회 옆랜드지방회를 돕던 김중림이 귀국하자 임준기가 1911년 초여름에 옆랜드로 이주하였고, 그는 방화중이 순회전도사로 돕던 옆랜드 한인장로교회에 등록하였다. 그해 6월 4일에 임준기의 가정에 딸 헤이즐이 태어났다. 옆랜드에 거주하였지, 임준기는 그해 10월에 인근에 위치한 클레아몬트의 한인지방회 회원이 되었고, 그달 14일에 클레아몬트 예배당 겸 학생양성소 나성식에 참여하였으며, 이듬해 1월에 본 지방회 학무 겸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3, 4년 동안 백인 사회에 쌓아둔 임준기의 신임으로 옆랜드에는 한인 노동자가 70여 명이나 되었다. 1914년 10월 7일에 임준기의 딸 임혜이들이 민찬호 순회 전도사의 인도로 클레아몬트 한인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듬해 2월 7일에 임준기의 부인 임광명이 백인 옆랜드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1915년 봄에 임준기가 김진수, 박영순 그리고 현승렬과 함께 네바다 로간의 100에이커에서 참외 농사를 하였는데 그해 6월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요 또한 우리 동포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셋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침례: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예예배: 오전 02:00 주일 2부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금요침례: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p> <p>Tel. (718)265-2584, www.fccb.org 14 Gravesend Neck Rd., Boro Park, NY 11223</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전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p> <p>www.pc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평일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전야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장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ey Ave., Hicksville, NY. 11801</p>	<h4>어린양 개혁신교회</h4> <p>담임목사: 유승례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토) 주일 2부 오후 1:50(토) 주일학교 오후 1:50(토) 찬양예배 오후 3:20(토) 수요예배: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맨큐버릴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금요초기도회: 평일 7:00, 화, 목, 금요일 7:30 금요헌양 기도회: 매월(목요일)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6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전 9:30(주일)</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복합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함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예수의 행복론(2)-행복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강인국 목사 (미시야나한인교회)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한다. 한국인은 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며, 중국인은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달아 놓고 복의 도래를 기원하며, 미국인은 "God bless America"를 노래하고 "God bless you"라며 기원한다.

예수님 당시 로마제국은 행복의 추구가 사회적 현상이었다. 로마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문화를 이룬 시기이다. 철학자 시제로와 같은 지성인은 행복은 자연의 탐구, 지

혜의 탐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로마사람들의 삶 속에 팽배해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은 물질적 부유와 쾌락의 추구였다.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공통점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다. 이 땅에서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러한 행복관을 보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셨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여덟

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3절), "애통하는 자"(4절), "온유한 자"(5절), "마음이 청결한 자"(8절) 등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다. 이 말은 곧, 참된 복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감각적인 존재이다. 사람은 보고, 만지고, 듣고서 마음에 어떤 판단을 한다. 사람은 그 판단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괴

로움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순식간에 불행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잘 먹어야 한다.

고대의 왕들은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소유한 자리이다. 당대에 가장 복 받은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고대의 왕으로 사는 꿈을 꾸다. 구약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다. 아합은 어느 날 높은 곳에서 자신의 왕궁과 주위를 내려다보았다. 넉넉한 산과 들만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다. 그런데 왕궁 가까운 곳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궁 가까이에 자신과 다른 일반인이 산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아보았더니 나봇의 포도원이었다. 그래서 아합왕은 나봇을 불러서 그 포

도원을 자신에게 팔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나봇은 조상이 물려준 땅이기에 팔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했는가? 왕상 21:4절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한 나라의 왕이 작은 장난감 때문에 토라진 아이처럼 토라지고 화가 났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자리에 있는 왕이, 작은 포도원을 때문에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나이가 되었다. 그의 손에는 물질과 권세가 넘쳐는데, 그의 마음은 욕심과 고민으로 가득 차다. 작은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나이가 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제한이 없다.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모든 요소를 부릴 수 있다. 사람은 자신에 마음에 궁을 지을 수 있고,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있

다. 사람의 마음은 요술 화폭이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어두운 바다를 그릴 수 있고 끝없이 높고 찬란한 우주를 그릴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슬픈 자화상을 그릴 수 있고 기쁨에 찬 자화상을 그릴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불행을 만들 수 있고 행복도 만들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또한 믿을 것이 못된다. 사람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참된 가치와 행복이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2:5). 사람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을 때에 시대와 물질과 환경과 상관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

cyd777@hotmail.com



인/터/뷰

까페라떼 사장 박수연

커피 한잔으로 힘을 얻는 곳...

한인타운 올림피아에 한 아담한 카페가 있다. 70-90년대 팝과 영화음악이 흘러나오는 이곳에 드나드는 손님들은 밝은 표정과 미소를 머금은 채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까페라떼라는 이름의 커피숍은 15년 이상 이곳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이곳에 오는 손님들과 커피숍 주인과의 대화의 모습은 옆집 누나가 동생들과 나누는 대화처럼, 혹은 삼촌이나 이모와 조카의 대화처럼 다가온다. 커피숍이

라는 장소는 단지 손님과 주인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동네주민들이 나누는 모습에 정겨움이 넘쳐나는 느낌을 준다. 까페라떼 사장 박수연 씨는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따스한 미소와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의 마음속에 행복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까페라떼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질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고 한다.

보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비록 그 말씀이 비즈니스하고 관계는 없지만 저희 가게를 찾아 오시는 분들에게 해드리려는 건 최고의 음식 서비스와 작은 친절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커피한잔 시켜놓고 몇 시간 동안 커피 리필만 몇 잔씩 하며 계시는 분들에게도 편안히 계시다 돌아가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그가 운영하는 커피숍 이름을 '까페라떼'로 정한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 커피숍을 인수하기 전부터 이곳이 '까페라떼'였으며 '까페라떼'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며 '까페라떼'라는 이름에 걸맞게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커피의 커피숍을 시작할 때 가장

맛이 좋은 커피를 찾는 작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커피를 한잔만 마셔도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박 사장은 좋은 맛을 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커피를 연구하게 됐고 맛있는 하우스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덕분에 그가 만든 커피 맛을 좋아하는 자들이 생겨났으며 수년간 까페라떼를 찾아오는 단골손님들도 생겨나게 됐다.

그는 좋은 맛과 더불어 건강함도 유지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음식을 정성을 들여 만든다고, 매일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메뉴로 지정하면 좋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게 된다고 한다.

"베이글은 라지몬트의 노아 베이글에서 신선한 베이글을 가지고 옵니다. 커피 원두는 유기농으로 된 것을 찾지요. 과일주스는 신선한 생과일을 사용해서 만들고요. 새로운 음식을 만들 때는 사전에 여러 번 만들어보고 메뉴로 내놓아도 됐을 때 손님들에게 판매된답니다. 다행히 말이들 좋아해서 감사하고요. 커피도 그렇지만 제 입맛에 맞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손님들도 맛있게 드실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15년간 같은 곳에서 비즈니스를 해온 박수연 사장. 그는 새롭게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은 꾸준함이라고도 조언했다.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박수연 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매주 토요일 오전 커피숍에서 바이블스터디 모임을 가졌었다"며, "팬데믹 중에는 스터디 모임을 줌으로 전환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기간 비즈니스를 운영해도 되는 업종에 카페가 포함돼서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었지만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기에 매상이 절반이상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박 사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매상이 많이 줄었지만 다행히 테이크아웃이 가능해서 음료와 음식을 파는 데는 지장은 없었다"고 말하는 그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생활을 해왔고 1주일에 한번 바이블스터디 모임도 계속해왔기에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매일매일 부여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감사가 되고 그것이 손님들을 대할 때 웃으면서 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 사장은 "커피숍이 까페라떼를 찾아오는 손님들



그리고 이곳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한결 같이 친절하고 따스함을 안겨준 공간이 되었으면 그리고 모든 손님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리고 지칠 때 커피한잔으로 손님들이 힘을 얻는 커피숍 사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팬데믹 기간이라 혼자 일하지만 언젠가 모든 것이 정상화 돼 종업원이 일하게 될 때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주인인식을 가지고 일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카페 까페라떼 영업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카페 위치는 3130 W.Olympic Blvd. #100, LA(올림픽과 허버드가 만나는 서독안경 건물)이다. ▲연락처: (323)734-4606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월요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점심 예배: 오후 1:20 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2부: 오전 9: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가 열려져 있는 우리의 동쪽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번호 없음),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영성)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금요영양예배: 오후 5:45(월-토) 새벽 기도회: 오전 6:00(토)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37-3009, Cell: (213)215-8523 185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6</p>	<p>엘피스가족연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목회)부회장 성서학: (월-토) 오전 9:45(101호) 사역장: 1. 영성사역 2. 교육 및 상담 사역 3. 가정사역 4. 네트워킹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단체세례기도회: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성) 주일 학 교: 오전 11: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714)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ly.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토 일 예 배 :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h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p>	<p>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30(토) 수요모임: "이성령이 임하여제"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Tel: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Tel: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동부교계 기사판

청소년 콘텐츠 컨테스트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가 팬데믹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증진을 위해 '청소년 콘텐츠 컨테스트'를 주최한다. 6월 20일부터 신청비 20달러(aycny.org에서 다운로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마감일은 7월 31일이며 주제는 '기독교인', 3-5분의 영상 콘텐츠로 드라마, 카툰, 뮤직비디오 등 자유선택. 1등에게는 아이패드 에어, 2등 애플 워치, 3등은 에어패드 프로를 상품으로 수여한다.

▲문의: (718)279-1313, contentcontest@aycny.org

무료 호돌이 여름학교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 호돌이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6주간 무료 여름학교로 운영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하며 커리큘럼은 다음 학기 공부를 미리 준비하고 미술, 과학실험, 사회성 향상 등 다양한 액티비티로 구성된다. 9월에 킨더가든에 들어가는 학생부터 현재 5학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재 및 모든 액티비티 관련 재료들을 무료로 공급한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20명.

▲문의: (917)497-4024, 이메일 mjyou@kafsc.org



퀸즈장로교회 선교바자회 첫날인 지난 5일 주차장에서 음식을 서빙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6월 한달간 선교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바자회가 6월 한달간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다.

퀸즈장로교회는 매년 봄 가을로 대대적인 선교바자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으나 팬데믹으로 지난해부터 토요일에 한해 한달간 음식주문 바자회를 열고 있다.

메뉴는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주로 김치류, 육개장, 생돈까스, 월남쌈, 컵밥, 떡볶이, 고

기만두, 돼지족발, 미역, 다시마, 멸치, 새우젓, 고추장, 된장, 찜닭, 갯잎, 진미채, 차요테장아찌, 잡채, 달고나라떼, 치미추리 소스, 김부각, 울가늬 생닭 등이다.

전화(718-886-4040)로 오더하고 토요일(12일, 19일, 26일) 오전 6시4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픽업하면 된다.

바자 수익금은 8월에 열리는 단기사교(중화상교)에 사용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1차 모금액 75% 달성

한인노숙인 쉼터구입을 추진중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6월 4일 현재 총 300,985달러를 모금했다. 이로써 1차 모금액 40만 달러 중 75%를 달성했다.

박성원 목사는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각계각층의 한인

들과 단체, 교회들이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한인노숙인 쉼터 구입에 협력해줘 마음 깊이 감사하다"고 전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했다.

▲후원문의: (718)683-8884 (기사제공: 뉴욕나눔의 집)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2021년 첫 대면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내년 2-3월경 연례기도회 계획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2021년 첫 대면기도회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회장 손성대 장로)가 6월 5일 2021년 처음으로 대면 기도회를 열었다.

오전 7시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는 박용기 장로(수석부회장) 인도로 대표기도 장세환 장로(사무총장), 말씀 마바울 목사(부회장), 회장인사, 합심통성기도, 마무리 기도 강현석 장로(명예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마바울 목사는 골로새서 3:1-14 말씀을 본문으로 "새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징벌을 내리셨는지 회개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이른 아침 새벽기도를 통해 날마다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전했다.

합심통성 기도는 1)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2)코로

나 종식, 경제부흥과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3)반기독교적인 법규정 "평등법"이 속히 철폐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이 이 사회에 널리 전파되도록 제목으로 3분여동안 뜨겁게 기도한 후 마무리 기도를 했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그동안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대면 기도회로 모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며 "월례기도회뿐 아니고 날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말하고, "단비TV 1분 기도회에 참여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자기 순서대로 기도하기를 부탁했다."

손 장로는 한국본부가 10월경 연례국가조찬기도회를 가지려 함에 따라 뉴욕지회는 내년 2-3월경으로 연례기도회를 계획한다고 밝히고, 단비 TV 1분기도회에 황창엽 부회장(KEB 하나은행)이 새로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기사제공: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밝히라!”

동부개혁장신 제3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박사) 제 3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7일 오후 7시 본교가 위치한 퀸즈장로교회당에서 열렸다. 이날 목회학석사(M. Div) 5명, 선교학석사(M. Miss) 2명, 신학사(B, Th) 3명 등 총 10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장 김성국 목사는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진리”라며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밝히는 졸업생이 되라”고 훈시했다.

김 학장은 “또 각자 섬기는 교회의 역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발전시키라”며 “여러분들로 인해 소망이 깃드는 교회가 되도록 하라”고 말하고 “꼭 똑똑하다, 일 잘한다는 말보다 섬기는 성품을 가지라”며 가족과 교회와 신학교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예배는 김성국 박사 사회로 기도 이종원 목사(KAPC 뉴욕노회장), 성경봉독 홍승룡 장로(이사), 찬양 글로리아시어즈, 말씀선포 오세훈 목사(KAPC 총회장), 학사보고 강기봉 목사(학생처장), 학위수여 시상 훈시 김성국 학장, 졸업생을 위한 기도 장규준 목사(총동문회장), 격려사 조문휘 목사(교수), 축사 백운영 목사(이사), 감사 죄의화(졸업생), 기념품 증정 졸업생 김성은 재학생 임지홍, 광고 이종원 목사, 축도 이용걸 박사(교수) 순서로 진행됐다.

오세훈 목사는 “그리스도로 옷입자”(롬13:11-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교양을 갖춘 학장을 회고하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졸업은 학업을 끝낸 것이 아니고 한 매듭을 맺은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시



동부개혁장신 제 3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교수 졸업생, 이사들이 기념촬영 했다.

작, 새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어떤 마음으로 새 출발할 것인가 묻고 첫째, 강한 믿음으로 출발하라 둘째, 빛의 갑옷(전신갑옷)을 입으라 셋째, (그리스도의 웃음) 단정히 입으라”고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라”고 말했다.

조문휘 목사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을 읽고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라며 “1)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2)사역현장인 교회, 성도는 주님의 피로사신 곳이다. 3)섬기는 도구는 성경 하나뿐이다. 자부심을 갖고 지사명령을 멋지게 완수하라”고 격려했다.

백운영 목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들어서신 것을 축하하며, 오랜 시간 신학교를 운영해오신 교수 동문들을 축하하고, 졸업생들을 배출한 각 교회에 축하한다”며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달려가는 졸업생들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최의화 졸업생은 “다음세대에 개혁주의신학에 입각한 진리의 빛을 전하겠다”며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 복음에 빛진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타협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담대히 전하겠다”며 교훈인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음으로 답사했다.

이날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목회학석사(M. Div): 김성은(공로상), 문명숙(학장 우수상), 이성남, 장수자, 최의화(학장 최우수상) △신학석사(M. Miss): 장연숙, 최화순(이사회상) △신학사(B, Th): 김복순(학장 우수상), 박경희, 윤경선.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1987년 고 장영춘 박사에 의해 개교한 이래 2018년 제 2대 김성국 박사가 학장에 취임했으며, 목회학석사 256명을 비롯해 기독교교육학석사, 교회음악학석사, 선교학석사, 여교역학과, 신학사, 교회음악학사 등 총 515명이 졸업해 목회자와 선교사, 전도사 등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한인예 뉴욕시의원후보 리처드 리, 린다 리, 뉴욕시장후보 앤드류 양 등이 뉴욕교계 목회자들과 기념촬영 했다.

투표참여로 2세 후보자들 돕는다

뉴욕교협, 한인 2세 뉴욕시의원 후보자들과 만남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이 뉴욕시의원으로 출마한 한인 2세 민주당 후보자들과의 만남을 지난 6월 8일 오전 10시30분 배이사이드 칠성가든에서 가졌다.

총무 한기술 목사 사회로 진행된 모임에서 회장 문석호 목사는 마태복음 5장 16장을 읽고 “이같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하는 크리스천인데 사실 정치인들에게서 착한 행실을 찾아보기는 힘든 세상”이라며 “그러나 우리 2세들은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1)공적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며 2)한인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들을 후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리처드 리(19지역 시의원 후보)와 린다 리(23지역 시의원 후보) 그리고 뉴욕시장으로 출마한 중국계 앤드류 양의 부인이 참석해 각각 소견을 밝혔다.

리처드 리는 지난 7년간 뉴욕 시의회 법안 및 예산 디렉터와 한인최초 퀸즈보로청 예산국장으로서 재직했다.

린다 리는 소셜워커로 KCS 김광석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후보자들은 일단 예비선거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호소했다. 투표가 힘이기 때문이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시안이 45%인데 투표율은 23%에 지나지 않으며 이 같은 상황은 50여명의 시의원 중 아시안은 단 2명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세샤양은 요즘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에 대해 언급하며, “아시안들이 힘을 합친다면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창의 목사, 이준범 장로, 김진화 목사 안경순 목사, 이종명 목사, 김희복 목사 등이 격려의 말을 했으며 이재덕 목사가 식사기도 했다.

뉴욕시장과 시의원 예비선거는 6월 22일이며,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조기투표 할 수 있다. 장소 및 방법은 www.nykoreansvote.com에 자세히 나와 있다.

(유원정 기자)

“이민자들은 모두 한 달란트 받은 자”

박성현 박사부부 저서 “한 달란트” 사인회

고든콘웰 신학교 구약학교수인 박성현 박사과 부인 장현경 교수의 저서 “한 달란트” 사인회 및 간증예배가 6월 7일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희선 목사 사회로 시작된 사인회 및 간증예배는 문석호 목사(뉴욕호신장로교회, 뉴욕교협회장)가 축하의 말을 한 후 박성현 교수와 장현경 교수의 간증, 서평으로 이어졌다.

문석호 목사는 “박 교수가 구약학자라 신학적인 책인 줄 알았는데 서평이 아닌 축하의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간증책이었다”며 “이 책은 성공스토리가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인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주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는 책”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문적 책보다 귀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박성현 교수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자신이 교수로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결단케 하신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24-25절, 이사야 61장 등을 소개하며 “이민자들은 모두 한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경 교수는 “남편과 만나고 살아온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고난이 닦쳐왔을 때가 선교의 시작임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고백했다.

서평을 맡은 이은수 목사(뉴욕큰샘교회 담임)는 이스라엘 목회 때 박성현 교수를 교인으로 만나 형제처럼 지냈으며 이 책을 읽고 “1)하나님이 박 교수를 위대한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셨다. 2)박 교수가 겸손과 온유의 사람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원정 편집국장(본지)은 저자들을 오늘 처음 만났으며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아닌 타국 여러 곳을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절절하다. 또한 달란트라고 하셨지만 절대 한 달란트가 아님을 책을 보면 알게 된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박진수 목사는 즉석에서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박상일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남가주든든교회 설립 20주년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박신욱 목사(시드선교회 대표)

예수님의 든든한 선교지향적 교회로 남가주든든교회 설립 20주년기념 감사예배

남가주든든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설립 20주년 감사예배가 6일 오전 11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려졌다. 팬데믹으로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려오던 남가주든든교회는 설립 20주년 감사예배를 기점으로 전통적인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12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은혜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김현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이진도 장로 기도, 박신욱 목사(시드선교회 대표) 설교, 임태호 목사, 오은규 목사, 임태호 목사의 축사로 진행했다.

박신욱 목사는 '새로운 차원의 삶'(행1:1-8)의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며 교회설립 시기부터 함께 했던 김충일 목사와 멕시코 단기선교를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순교한 김육란 사모를 향해 '두분은 한말의 밀알이 되셨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 김충일 목사는 30대에 남미에서 교회를 개척해 크게 성장하는 교회로 세운 뒤 60세에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온 이민자를 위해 교회를 개척해 뿌리와 기초가 든든한 교회이며 꿈과 비전으로 선교하며 이민자를 섬기고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이어갔다.

박 목사는 "날마다 사람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구제하고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처럼,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삶의 차원이 다른 성도들이 되고 새로운 차원의 선교에 앞장서서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강권했다.

이어 임택 목사(풀러신학교 교수)는 "오늘 예배를 통해 큰 기쁨과 감동을 느낀다. 이 교회는 지식적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세우셨다. 또한 남미의 열정을 동반한 예수님의 든든함으로 세워졌다. 설으로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오은규 목사(밀라선교회 대표)는 "세상에는 세워졌다 무너지는 교회가 종종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든든히 세워져간 교회를 보며 감사하며 축복한다. 주님옵실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지길 축원한다"고 축사했다.

또한 임태호 목사는(시드선교회 부대표) "든든한교회는 흠어진 자들이 다시 모이는 교회다.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라고 생각한다. 20년 동안 정착했다면 이제 흠어지기 위해 모여야 한다. 다시 흠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축사의 말을 전한 뒤 박신욱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본 교회는 설립기념 선물과 아사도를 준비해 축하 잔치를 마련하고 교제의 시간을 이어갔다. 남가주든든교회는 2001년 김충일 목사가 뜻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설립해 부흥해 오던 중 2008년 지병으로 소천한 뒤 2009년부터 2대 담임으로 김현인 목사가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이끌어오고 있다.

(이성자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임성진 총장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탁월한 사역자로 훈련받도록 최선" 월드미션대학교 총 106명 온라인 학위수여식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 온라인 학위수여식이 5일 오후 1시에 열려 106명이 졸업했다.

임성진 총장은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축되고 우리 삶의 공간이 되는 신앙생활과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왔다"며 "어려움은 좌절의 시기였지만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WMU가 더욱 내실을 다지면서 우리학교를 졸업하는 인물들을 영성과 인성 및 사역역량을 훌륭하게 갖춘 탁월한 사역자로 훈련받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졸업생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사역지로 보내지게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신선목 부총장 인도로 시작된 이날 학위수여식은 최윤정 교수가 기도했으며 신선목 부총장이 학사보고를 했다.

이어 총장, 부총장, 이사가 학위수여를 했으며 최원현 학우가 축가를 불렀고 임성진 총장이 총장메시지를, 졸업생 한미정 학우가 답사했다.

이어 참석자 모두가 헌신의 기도를 했으며 교가를 함께 부른 뒤, 루이스 모랄레스 교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학위수여자는 △기독교 상담학 준학사(AACC) 8명 △기독교사역학 준학사(AACM) 9명 △기독교상담학 학사(BACC) 9명 △기독교사역학 학사(BACM) 2명 △간호학 학사 46명 △상담심리학 석사(MACP) 22명 △음약학석사(MAM) 5명 △신학석사(MAT) 4명 △목회학석사(M.Div) 14명 △교회음악학 박사(DCM) 5명 △목회학박사(D.Min) 10명 등 총 106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박준호 기자)

GBC 나눔On 캠페인 퍼스트 펭귄 발표 106,663.12달러 모금...5단체, 10선교지, 6개인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이영선 목사)은 커뮤니티의 선한 사역을 이끄는 '나눔 On(온) 캠페인 퍼스트 펭귄'을 선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 회복을 위해 지난 4월 20일에 진행된 나눔On(온) 캠페인 특별 공개 생방송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 106,663.12달러의 성금이 모아졌다.

GBC측은 "나눔은 캠페인을 통해 GBC에 맡겨진 이 물질은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 팬데믹 가운데 세상의 작은 변화를 위해 GBC가 헌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차 '퍼스트 펭귄'은 5월 19일까지 많은 단체들이 지원한 가운데 주어진 심사기준(도전, 전문, 창의, 성실)을 토대로 선정됐으며, 나눔 활동비 지원금으로 5,000달러씩을 지원한다. 퍼스트펭귄에 선정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 장애인 선교기관이며 사역을 통해 남가주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을 돕고 있으며, 사랑의캠프 운영. △Wilderness International Church/광야국제교회(대표 빌리 노 목사): 무슬림을 포함한 다민족 선교사역(홀리스포함)을 위한 개척교회. △Delirium Musicum(대표 Etienne Gara): 20명의 젊은 현악연주자로 이뤄져 소외된 곳을 찾아 콘서트 등 연주로 위로와 회복 △Overflow Ministry(대표 신용환): 다음세대를 위해 기독교문화 콘텐츠로 선교하는 찬양

사역단체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 Mannamill 프로젝트 '한끼 나눔'으로 지원한다. 소외된 시니어를 위해 아파트를 방문해 점심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점심식사'로 함께 섬기고 있다.

또한 선교사를 위한 미션펀드를 받게 된 선교사는 1차로 9개국 10명의 선교사로 선교후원금은 1,000달러씩이다. 지원받게 되는 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김강식 선교사(태국) △노진태 선교사(캄보디아) △강순철 선교사(방글라데시) △김수경 선교사(잠비아) △유진상 선교사(이스라엘) △이상란 선교사(타이완) △남학현 선교사(파라과이) △김종철 선교사(캄보디아) △오정환 선교사(인도) △김용신 선교사(아이티).

그 외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1차 개인수혜자는 6명이며, 올해 말까지 지원자를 계속해서 접수하고 있다.

한편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와 미주복음방송이 함께하는 'Mannamill 프로젝트 한끼 나눔'은 6-7월 2개월 동안 진행된다. www.mannamill.com을 통해 점심 한끼를 무료로 나누는 프로젝트다.

"나눔-On(온) 캠페인 2021"에 동참을 원하면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www.kgbc.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이메일 nanum-on@kgbc.com 또는 (714)484-1190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 졸업식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하나님의 일꾼 양성하는 영성과 지성의 전당" 미주장신대 40회, 41회 학위수여식 함께 열려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40회, 41회 학위수여식이 5일 오전 11시 본교 예배실에서 열렸다.

이상명 총장은 "배움의 공동체가 지닌 생명력은 역사와 전통에 있다. 졸업생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본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선지생도들이다. 본교는 작게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산실이고, 또 크게는 미주지역의 교회와, 또 세계라는 무대에서 사역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영성과 지성의 전당"이라며 "미주장신대가 내날이 성장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오늘 졸업생들이 모교인 미주장신대와 여러분이 속한 교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빛낼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영성과 지성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 치듯 비상해 올라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마지막 주님께서 '작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보다 큰 축복과 칭찬으로 열매 맺기를 중심으로 기원한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루빈 교수(교무처장) 사회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김루빈 교수가 학사보고 했으며 이상명 총장이 학위증서를 수여

했다. 이어 총장상, 이사장상, 동문회장상 시상식을 가졌으며 이상명 총장의 격려사 시간이 있었다.

이어 졸업생 대표 인사시간이 있었으며 교가제창으로 학위수여식을 마쳤다.

한편 학위수여식 전에 열린 감사예배는 이명철 목사(기획 및대외협력처장) 인도로 시작, 정용갑 목사(선교학과 디렉터) 기도, 김경준 목사(상담학과 디렉터) 성경봉독, 박동진 목사 특송, 이사장 유영기 목사가 '초심을 끝까지(요15:12-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유영기 목사가 축도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작년 학위수여식과 함께 열렸다.

△40회 학위수여자로 학사(B.Th) 10명, 목회학석사(M.Div) 18명 △41회 학위수여자로 학사(B.Th) 5명, 목회학석사(M.Div) 15명, 크리스천상담심리학(MACCP) 3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박준호 기자)



엘피스가정사역원 출판감사 및 선교사파송 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온라인 CABG 2021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2021이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7월12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유튜브와 줌으로 열린다. 강사는 △빌립보서: 김인철 목사(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이사야: 김준식 목사(남가주살롬교회) △마태복음: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이며 등록비는 성인 30달러, 자녀 무료.

▲문의: (310)702-2688

2021년 여름 IgniteNextGen 펠로우십 프로그램

한미연합회(대표 유니스 송)가 차세대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인 전국대학생리더십컨퍼런스(NCLC)를 대체해 한인 대학생 및 청년전문가(18-25세)들을 위한 제2회 이그나잇넥스트젠(IgniteNextGen, 이하 "ING") 여름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CKA(Council of Korean Americans)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되는 6주 과정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이다. 신청 마감일(연장)은 6월 13일(주일) 밤 11시 59분(미서부시간) 신청 접수 등록(링크): bit.ly/ING21App 프로그램 형태: 원격/비대면 △구성: E-러닝 교육/웨비나/그룹 프로젝트/기술개발 워크샵/펠로우 공동체학습/네트워킹 세션 프로그램 상세 정보: www.ignitenextgen.org 참고

▲문의: info@ignitenextgen.org

은혜한인교회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행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행사를 13일(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본 교회 미러클센터 파킹장에서 실시한다. 12세 이상인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료접종은 화이자와 안센을 접종하며 접종희망자가 원하는 백신을 놓게 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자들은 건강보험이나 신분증은 필요 없고 사전예약 해야 한다.

▲문의: (714)278-9000

GMU 미디어 공개 특강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박사)는 6월 14일(월)과 24일(목) 양일에 걸쳐 Youtube Live Streaming를 활용한 미디어 공개특강 시리즈 3를 개최한다. 본 공개 강의는 14일 기초(Basic)와 24일 고급(Advanced)으로 구성되며 GMU 강의실(GMU 미러클센터빌딩(MC) 304호)에서 진행된다. 실무 강의는 간단한 이론과 적용사례와 시연으로 구성되며 기초가 없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할 예정이다. 2일 교육비가 100달러, 하루만 참석하는 경우 50달러다. 교육비에는 교재, 식사가 포함되고 미디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세션송가 한글 PPT와 한영PPT가 함께 제공되며 히브리어, 헬라어 폰트 설치를 포함한 19가지 성경번역본과 원전본해 및 주석, 사전 등의 다양한 공개 Bible SW 등이 있는 64G USB도 함께 제공된다. 선착순 30명. 현장접수 가능하나 인원문제 온라인 신청을 바란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GbqFM-L4dF1kMEsdVf1gyBibNt0ljj53FYqEjUBRDvThg/viewform

▲문의: (714)525-0088(본교) 내선101, 102, 203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석부 목사)에서 2세 신앙교육의 비전을 품고 함께 동역할 중고등부를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조건은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와 대화가 가능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영어, 가족사진 첨부), 자기소개서(영어), 영어 설교 동영상 or 음성파일(동영상 링크주소를 첨부)이다.

▲문의: (310)973-5106, 이메일: kumranumc@gmail.com

한빛교회 설립기념 및 원로장로추대 예배

한빛교회(담임 차광일 목사)는 설립 34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원로장로 추대예배를 20일(주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이날 이재규 장로가 원로장로에 추대된다.

▲문의: kkoh0191@gmail.com

"사모행진" 중동A국 황화진 선교사 엘피스가정사역원출판감사및 선교사파송예배

엘피스가정사역원(대표 박운송 목사) '사모행진' 출판감사에 배 및 선교사 파송예배가 5일 오전 11시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김호용 목사)에서 열렸다. 박운송 목사는 "엘피스가 6년 전 창립예배를 드렸다. '사모행진'을 출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가는 교회마다 저의 시선이 사모님들께 향했고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려운 사모들을 위한 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사모들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모아 소책자를 만들었다. 이 책을 통해 사모님들의 정체성 회복이 이뤄지며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한다"고 인사했다.

문정란 목사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박운송 목사가 감사메시지를 전했고 박성민 박사(SaG 대표)의 축사, 김승주 집사 기도로 이어졌다.

이날 김호용 목사가 '아픔을 넘어 회복을'(롬12:1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박운송 목사가 '사모행진' 책 소개를 했으며 황화진 선교사 파송식을 가졌다.

중동 A국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 사역하게 되는 황화진 선교사는 "코로나19로 1년 여간 모든 게 얼어붙은 거 같지만 열매는 부흥의 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며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선교사로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한다. 선교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박성민 박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교계 “기독교사립대 존립 침해하는 결정” 반발

인권위, 기본권 침해 이유로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한 기독교사립대학 채플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니 대체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하자 한국교회와 종교계 사립대학(종립대학)의 존립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기정추)는 2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 결정은 기독교학교의 존립 자체를 뒤흔든다”며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 기정추 운영위원장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립대학에 예배, 선교, 교육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립학교의 설립정신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가 예시로 든 평준화 고등학교 사례와 달리 대학교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따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학교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인권위가 삼은 근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도 전남 성명에서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해 입학한 학생에게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과 한국교회연합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광주의 A대학 총장에게 “채플 수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대학이 기독교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종립대학이지만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대학이고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학과가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또 신입생 모집요강에 채플 수업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1998년 숭실대 사례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이번 인권위 결정은 당시 ‘

대학에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숭실대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면서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도 “인권위는 대체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입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미리 건학이념을 제대로 알리고, 그에 찬성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권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공공립대 비율을 늘리고, 사립대엔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사립대를 공영화, 국립화하려 규제하는 접근법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인권위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기정추 사무국장인 함승수 숭실대 교수는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학교가 따를 이유는 없다”며 “다만 인권위가 권고 결정을 내리면 행정당국이 후속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의학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의사연합’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의사와 치과의사 1500여명이 모인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의사연합’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윤리와 의학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평등법 제정을 의료인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이날을 시작으로 차금법을 반대하는 법조인, 언론인 등 전문가들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매주 이어간다. 정당한 장혜영 의원 등은 지난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이날 “차금법은 인듯 들으면 차별을 없애자는 좋은 뜻을 담고 있는 법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다가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신앙

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위협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전남대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유식 서울대 치의학 박사, 염안섭 수도권세료양병원장 등은 차금법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의 보건성 알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채규영 분당차여성병원 교수(소아청소년과)가 대표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차금법이 도입되면 의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면서 “학문적 표현이나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제약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과 국민에게 가게 돼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가지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로서 차금법 제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차금법이 근거중심의학 위협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등 의료 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차금법으로 강제하려는 젠더 개념이 과학의 영역인 의학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젠더 개념 자체가 해부학적으로나 유전학적, 생리학적으로 의학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환자의 자기 결정권 측면에서도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과 성전환 수술로 인한 문제점들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돼 환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탈동성애 상담을 제한하고, 의료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거부했던 치료와 수술을 강요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법 제정을 반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평등의 약속, 차금법 바로 지금’ 기자회견이 열렸다. 역대 국회에서 차금법을 발의했던 17-19대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차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교단·교회와 총신, 내일로 힘차게 나가자”

예장합동 제58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주여, 울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 감물처럼 흘러 어둠 지나가고 아침 오게 하소서.”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아리아 ‘울게 하소서’가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라틴어의 율곡과 달리 한국어로 개사한 율곡 하소시였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간절한 목소리가 더해졌다. 음을 붙인 노래지만 하나의 기도문과 같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은 제58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둘째 날인 1일 갈라콘서트 ‘불의 연대기’를 무대에 올렸다. 예장합동은 총회 역사를 불의 연대기라는 서사시로 정리했는데 여기에 곡을 붙였다. 독창과 코러스 등 총 11곡으로 구성됐고, 개혁부수신학의 불꽃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목부림들이 담겼다.

곡이 끝날 때마다 예배당에 모인 참석자들은 환호와 큰 박수로 화답했다. 합동 교단의 시간을 함께한 이들은 그들이 지나온 시간들이 무대 위에서 재현되자 회상에 잠겼다. 일부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직접 대본과 작사 작업에 참

여하고 이번 콘서트의 총감독을 맡은 소강석 예장합동 총회장은 “이 서사시는 과거를 정리했지만 우리 교회와 교단 그리고 총신의 미래를 지향하게 한다”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현재 우리를 묶고 있는 줄을 끊고 내일로 힘차게 나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번 목사장로기도회 주제기도 한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다. 소 총회장은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과 기도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동은 오직 순례적인 보수신학 하나 지키려고 분리되는 아픔을 겪었다. 교단의 적통성과 범통성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우리 교단 선진들은 현실적으로는 허허벌판 황무지로 나와야 했다”며 “그럼에도 기도의 눈물을 뿌리며 교단을 일궈냈다”고 전했다.

소 총회장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느냐”며 “어느 때부터가 회상과 헌신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기도와 영성 운동보다는 정치가 앞서게 된, 교조적인 교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은 기도회 설교자로 선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첫째 날 저녁집회 말씀을 전한 오정호 대전 새로남교회 목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의 교회가 잘못된 거품을 빼기를 원한다”며 “오직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길 소원한다. 비본질에서 본질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둘째 날 저녁집회 설교자로 선 한기승 광주중앙교회 목사는 “우리 총회에 소리는 많은데 진짜 소리가 많지 않다. 어느 소리가 진실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워졌다”며 “교회 본질 가운데 하나는 바른 말씀의 선포다. 우리 총회가 하늘 소리로 채워지길 축복한다”고 말했다.

예장합동은 1964년부터 매년 목사장로기도회를 열어왔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 진행했다. 사전 등록된 700여명의 참석자는 ‘코로나19 신속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통해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했다. 합동 측은 실제 참석자 중 한 명이 양성이나 그대도 인근 보건소로 안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적·물적 자산 갖고 플랫폼 구축해야”

GMS선교저널 ‘교회와선교’ 창간호에서 한국선교 성장밝혀

한국 선교가 질적 성장을 하려면 선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적 성장을 통해 축적한 선교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최대 선교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의 선교전략개발연구위원회는 지난달 ‘교회와선

교’ 창간호를 출간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글로벌미션 어드밴스’란 선교저널을 발간한 뒤 약 10년 만에 발행하는 GMS선교저널이다.

GMS 관계자는 6일 “‘교회와선교’는 개혁주의 선교학과 선교 이슈, 지역 연구 등을 다루는 전문 선교저널”이라며 “선교전략연구개발원과 14개 GMS지역연구소 연구원 등이 주필자”라고 설명했다.

전철영 GMS선교사무총장은 ‘GMS R&D(연구개발) 발전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저널에 실었다. 전 총장은 “GMS는 현재 101개국에 255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선교사라는 인적 자산, 선교 사역으로 이룬 물적 자산, 선교 경험 등 연구 자산을 수년간 역류된 한국의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선교사, 조선족 장문석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화한국은 오는 11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주최하는 정기 월례회에서 네 명의 선교사 석방을 위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총장은 “GMS가 양적 성장을 통해 한국교회의 세계선교를 주도해 왔다면, 이제 인적·물적·연구자산을 연구해 선교정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교현장과 한국교회에 이를 제공해 질적으로 한국교

회의 세계선교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노멀 시대 선교 동향에 맞춰 7가지 연구방향도 제안했다. 먼저 ‘선교지수 선정 및 기본제안 연구’다. 전 총장은 “선교지수를 만들어 사역별 선교전략을 세우고 지역별·종교별 연구를 해야 한다”면서 “선교사와 선교사역별 현황, 지역별 현황 및 통계 등을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신 선교 동향과 선교신학 이슈, 주요 선교 주제, 지역연구 등 이슈도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 이주민·통일·난민·이슬람권 선교와 자비량·비즈니스·전문인 선교, 단기 선교 등 선교전략 현안과 팀 사역, 교회 동원, 선교사 복지 등의 연구도 필요하다. 안정적인 연구인 연구를 하려면 인력과 연구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개혁주의 선교신학의 정립, 교회의 선교 역량 강화도 연구방향에 포함됐다.

한국형 선교전략 개발도 주문했다. 전 총장은 “선교 중심이 서구에서 제3세계로 넘어왔다”면서 “전통적인 서구의 선교사역을 모방하지 말고 한국형 선교 방법과 방향을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 때문에 방황하는 탈북민...”

탈북민 출신 노옥실 목사, 관악동일비전포럼서 주장

우리 곁에 있는 3만여명 탈북민이 북을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체성과 비전을 세워주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악동일비전포럼(상임대표 남승호)은 31일 서울 동작구 물뎀동산교회에서 ‘탈북민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한국교회의 협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월례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도 중계됐다.

탈북민 출신인 거룩한빛광성교회 통일선교부 노옥실 목사는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그동안 진행한 통일구국기도회의 응답으로 탈북민을 남한에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북을 통일의 마중물인 탈북민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북을 통일의 비전을 나누며 하나님을 이루실 중지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목사는 탈북민이 우리 곁에 온 지 20년 이상이 됐지만,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는 북한 사람들을 북을 통일의 마중물이라 할 영역 전쟁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탈북민 사역을 하는 다는 명목으로 교회에 출석한 이들에게 돈을 준 사례를 들었다.

노 목사는 “심지어 많은 이단도 돈으로 탈북민의 영혼을 훔쳤다”며 “이로 인해 탈북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탈북민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져야만 환경과 문제에 방황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노 목사는 탈북민에게 남한에 온 이유와 목적, 정체성을 예수생명의 북을과 함께 지속해서 가르친다. 또 그들에게 자신이 고함의 교회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이들이 통독하고 묵상하며 기도로 경건 훈련을 하도록 지도한다.

노 목사는 2019년 7월 5명의 탈북민 집사들과 매일 성경 2장씩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경건 훈련을 시작했다. 변화된 탈북민들은 불평과 원망, 험담 등을 하지 않게 됐고 다른 탈북민을 돕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노 목사는 북을 통일 사역을 위해 남북 성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뒀다면 이곳에 온 탈북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말씀의 세계관을 세우도록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 목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탈북민에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탈북민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탈북민도 배울 것”이라며 “남북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북을 통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호국보훈의 달’ 국가안보기도회

한교연 “자유 대한민국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에게...”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일대에서 ‘백령도 국가안보기도회’를 갖는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등 한교연 임원장과 회원 교단 총무 40여명은 8일 1박2일 일정으로 백령도를 방문한다. 애초 7일부터 예정된 행사는 현지 기상 상황으로 하루 연기됐다.

이들은 방문 기간 백령도 두 무진교회에서 안보기도회를 갖고 천안함 위령탑, 중화동교회, 콩돌해안 등 백령도 일대의 전적지를 탐방한다. 안보기도회에선 ‘북한의 북을화와 평화통일’ ‘서해5도와 백령도의 안보’ ‘천안함 등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장병과 그 가족’ 등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함께 기도한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자료분석실 지도원을 지낸 이나경 탈북미혼모·장애인지원지원협회 대표의 안보 강연도 예정됐다.

한교연은 지난 4일엔 ‘호국보훈의 달 메시지’를 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그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교연은 메시지에서 “71년 전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9위의 경제 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에 국군장병과 유엔 참전 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다”면서 “해마다 돌아오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은 우리 모두에게 71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난 비극적 전쟁의 과거의 사건으로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남북 화해 구호에 가려 자유와 평화,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무수한 국민이 피를 흘려야 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점점 잊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호전적인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 한 관념적 평화론은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교연은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키는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며 “우리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과 그 유가족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고 다시 한번 머리띠를 동여매 흐트러진 안보의식을 굳건히 하자”고 권했다.

국내외 50여 교회 합심 북을통일 기도

15회 세이레평화기도회 4일부터 21일간 간구

한반도 북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제15회 세이레평화기도회가 4일 서울 한국중앙교회에서 시작한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사장 임석순 목사, 상임대표 허문영 박사)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50여개 교회 및 단체와 협력하는 순회 기도운동으로 25일 마무리된다. 기도와 주제는 ‘나를 따르라’(요 21:22)이다. 현장 예배가 어려운 이들은 유튜브 채널 ‘세이레평화기도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교의 창 (171)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미국에서의 선교적 골든 체인(Chain)

현대는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어떻게 245년 밖에 안 된 역사를 가진 이민국가가 각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청교도들의 신앙유산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이 유산은 "국기에 대한 맹세(The Pledge of Allegiance), 국가(The Star-Spangled Banner),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속에 잘 농축되어 있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민족자결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연맹체국가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18세기말 미국은 전쟁의 후유증, 이신론의 대두, 교회의 쇠퇴 등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웠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셨다. 그것은 전통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밖에서 또 다른 영적 불꽃을 예비하셨다.

그 시발점은 대학생들의 건초더미 기도모임이었다. 이때로부터 촉발된 각성운동은 전 미국대학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부흥과 선교의 물결은 세계로 나아갔다. 미국 선교역사의 골든 체인(Golden Chain)이 시

발된 것이다. 즉, 건초더미기도회가 헬몬산 집회로 연결되었고 이 집회는 학생선교지원자운동(SVM)으로 꽃을 피웠다.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미국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킨 골든 체인의 실상은 무엇인가? 과거 역사를 직시함은 미래로 나아가 갈 거울이 된다.

1. 사무엘 밀즈(Samuel J. Mills, Jr)와 건초더미 기도회 (1806)

사무엘 밀즈(Samuel J. Mills, Jr)는 코네티컷 주에서 조합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798년에 시작된 대자각운동의 영향으로 17세 때에 개심했다. 그는 개심한 순간부터 전 생애가운데 세계선교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19살 되던 해에 그 아버지께 "가련한 이방인들

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만족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밀즈는 1806년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윌리엄즈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는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면 후사크강과 대학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에서 기도하곤 하였다.

1806년 8월 밀즈는 친구 4명과 함께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소나기를 만났다. 그들은 이를 피하고자 건초더미 밀으로 들어가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 기도제목은 학생들 간에 해외선교에 대한 자각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때 밀즈는 "만약 우리가 뜻하거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친구들을 격려했는데 이 말이 뒤에 가서 그들의 표어가 되었다. 그 건초더미 아래에서 해외선교사로 지원한 다섯 명이 주축이 되어 미국에 최초로 "학생선교회" 모임이 생겨났다.

윌리엄즈 시에 돌아온 이들은 세계선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1808년 9월에는 '형제단'(The Society

of Brethren)이라 이름 하는 공식적인 모임을 창설하였다. 그 구성원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신을 바친다는 뜻 아래 비밀한 맹세를 함으로써 단결을 굳게 하였다. 또한 이 모임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던 끝에 미들베리, 예일대학 등에 사람을 보냈다. 사학자이자 교회확장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케네스 스콧트(Kenneth Scott Latourette)는 미국교회가 해외선교에 대해 최초로 크게 자극을 받은 계기는 바로 이 "헤이

2. 헬몬산(Mount Hermon)의 학생집회(1886)

1856년에 미국에는 156개의 대학과 46개의 신학교가 있었다. 그중 70개 대학에 다양한 성격의 기독교단체가 생겼다. 이렇게 많은 신앙단체와 운동이 일어난 것은 대부분이 건초더미 기도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헤이스택 기도회에서 시작된 미국의 대학인 선교운동은 80년 뒤인 1886년 6월 헬몬산(Mount Hermon) 집회로 연결되었다. 이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미국 대학인 선교역사의 한 분수령이 되었다. 이 모임은 무디(D. L. Moody)를 중심으로 성경공부와 복음 전파수단의 음악공부를 하였는데 자유롭게 토의하는 분위기였다.

6월 16일에는 유명한 성경학자이자 "세계선교"(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의 편집자인 피어슨

외선교를 위한 프린스턴헌장(Princeton Pledge)에 서명하였다. 이 서명자 가운데 무슬림 지역 선교사가 된 쥘웨머(Samuel Zwemer)와 다음 세대의 훌륭한 전도자가 된 스피어(Rober E. Speer) 등이 있었다. 그 헌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외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것이다.

3. 학생 자원자 운동(SVM: 1888)

헬몬산에서 받은 비전은 이제 1888년 11월 6일 구체화되었다. 그것은 세계선교를 향한 대학인 지원자운동단체(SVM)이었다. YMCA의 대표로 존 모트(John R. Mott)와 YWCA의 대표로 네이튼(Netidon), 신학교선교연합회 대표로 로버트 윌더(Robert P. Wilder) 등이 뉴욕에 모여 학생선교지원자운동(SVM: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단체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의 표어는 "우리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 시키자"이었다. 초대 회장으로 존 모트, 여행총무직으로

고 1920년 데스 모네스(Des Moines Convention) 대회는 그 절정이었다. 이 연례 집회에서는 949개 학교에서 6,890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하였고 2,783명이 복음전도자로 새롭게 등록하였다.

SVM은 미국 기독교사 가운데 존재자체로서 의의가 크다. 한 때는 그 규모가 700개 교육기관에 40,000명이 넘었고 1945년까지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의 후원으로 20,500명의 학생들이 SVM 선언에 서명한 후 선교지로 떠났으니 그 공헌도가 작지 아니하다. 하나님께 사는 근대와 현대를 잇는 역사의 과도기에 SVM을 통해 대학인들과 미국교회를 깨우고 세계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였다.

맺는 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사60:22). 역사는 작은 불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불꽃은 순식간에 온 들판을 불사른다. 사무엘 밀즈에 의해 시작된 건초더미 기도회가 헬몬산의 학생집회로 점화되었고 이는 SVM운동으로 이어져 미국과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쓰임을 받아왔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바로 청교도 사상과 근대사 속의 영적 골든 체인의 운동(Movement)과 무관할 수 없다.

현대 21세기의 미국은 옛날과 상당히 다르다. 신앙적 퇴보와 함께 산적한 문제들을 앓고 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 코리안아메리칸이 된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청교도적 사명으로 하나의 불꽃이 되는 것이다. 제 2의 선교적 골든 체인들이 엮어지는 환상을 그려 보면서!

jrsong007@hanmail.net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들판을 사른다.

사무엘 밀즈는 미국에서 선교적 골든 체인을 일으키는 불꽃이 되었다.

19세기 미국은 건초더미 기도회-헬몬산 학생집회-SVM 운동으로 깨어났다.

of Brethren)이라 이름 하는 공식적인 모임을 창설하였다. 그 구성원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신을 바친다는 뜻 아래 비밀한 맹세를 함으로써 단결을 굳게 하였다. 또한 이 모임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던 끝에 미들베리, 예일대학 등에 사람을 보냈다. 사학자이자 교회확장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케네스 스콧트(Kenneth Scott Latourette)는 미국교회가 해외선교에 대해 최초로 크게 자극을 받은 계기는 바로 이 "헤이

(A.T. Pierson) 박사가 "모든 사람이 가야 하되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요지의 설교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그는 "세계 복음화는 우리 세대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 집회 후 윌더(Robert Wilder)와 포먼(John Forman)은 헬몬산에서 받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여러 젊은이들과 나누기 위해 1886-87년 사이 미국과 캐나다의 162개 교육기관을 방문하였다. 이 활동으로 50명의 여성을 포함한 2,106명의 젊은이들이

로버트 윌더가 맡았다. 이 모임은 프린스턴헌장을 본 따서 선언 카드를 만들었다. 그 후 이 운동은 30년 동안 놀라게 성장하였다. 이 기관을 통한 운동 특징 하나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선교대회였다.

1891년에는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제1차 국제학생전도대회가 열렸다. 이 때에 32명의 선교회 대표들과 31명의 외국선교사를 그리고 151개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558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이 학생지원자운동은 계속 성장하였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⑤ 변화의 장소 다메섹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바울은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바울 시대에 다메섹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바울 인생의 전환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향하여 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바울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나아가 세계 교회사에 큰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스테반 순교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이 돌에 맞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스테반과 예수 추종자들이 성전과 율법을 훼파하는 악한 세력들을 보였습니까. 율법과 성전은 바울에게 목숨

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에 의해 파송된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

은 자신을 '사도'라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즉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자신의 사도성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세 번씩 설명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다메섹은 시리아 즉 아람의 수도이자 이 지역 중심도시였습니다. 오래된 도시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넷 중에 하나가 '아람'입니다. 그가 거주한 지역이 아람 즉

시리아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아 대표도시입니다. 다메섹도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창 15:2)라고 주장합니다.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대표족속이 아람입니다. 알려진 아람들은 이렇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창 25:20), 야곱의 아내들이 아람출신입니다. 군대장관 나아만도 아람, 특히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다메섹 사람(왕하5:12)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과 전쟁을 벌일 때 아람은 소바왕 하닷을 도우려 하다가 다윗에게 크게 패하고(삼하8), 아람은 아람과 전쟁(왕상22)중에 죽음을 맞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다메섹을 이방의 대표로 간주합니다. 이사야는 다메섹 멸망을 경고(사17:1-3)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메섹의 심판을 예언(렘 49장)했고, 아모스는 다메섹의 죄를 지적(암1:3-5)했습니다. 스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방 땅에도 있음(스9:1)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선포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걸어서 옛새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다메섹은 국제적인 도로망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 다메섹에는 안티레바는 산맥에서 흘러 내려오는 나하르 바라다(Nahr Barada,아미나)강과 도시 남쪽에 나하르 엘 아와이(바르발)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들이 나안 장군이 요단강보다 더 맑다며 분노했던 강들(왕하5:12)입니다. 이 두 강도 다메섹에 중요한 교통의 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은 정치와 경제 중심도시였고, 나아가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주전 9세기에 다메섹에는 하닷 신을 숭배하는 아람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닷은 폭풍과 다산의 신으로 다메섹 수호신이었습니다.

니다. 로마정부는 주후 1세기에 아람신전에 주피터신전을 혼합하여 더 큰 신전을 만들어 다메섹을 로마정부 종교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주후 4세기에 하닷과 주피터 신전은 성요한 성당이 되었고, 이슬람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8세기 초에는 그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섰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사역의 비전을 전달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세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23장에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한 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다메섹에 거주했던 제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난 아나니아를 기념하는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다메섹에 있습니다. 다메섹 성벽에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피한 것을 기념하는 바울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다메섹은 바울이 핍박하러 갈 때부터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변화된 바울의 적극적 전도로 다메섹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한동안 다메섹은 기독교 도시였다가 이슬람에 정복당합니다.

AD 7세기 후반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걸출한 교회 지도자가 다메섹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전통신앙론"이란 책을 남겼습니다. 동방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책인데 서방교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과 견줄 만한 작품입니다. 요한은 다메섹이 강력한 이슬람 영향권 아래 있을 때 다메섹에서 성장하여 건설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교회는 동방교회 신학과 신앙을 지켰던 기독교 변증가 요한을 배출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7)

II. 초기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1)

서론

필자는 그동안 6번에 걸쳐 최초의 공식예배인 모세와 시나산 예배를 통해 포스트코비드시대 사역변화에 따른 교회예배와 음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내용의 중심으로 전환되어진 초기 기독교 교회의 예배와 음악을 가지고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역사적 고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예배공동체, 그리고 순수한 열정의 찬양이 있는 찬양공동체였던 초기 기독교 교회를 서술하여 이 요소들이 오늘날 예배에 주는 도전들을 발견하고 포스트코비드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예배와 음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초기 기독교 교회 예배의 내용은 사도행전 2:4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2가지 중요 요소가 담겨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는 말씀에 강조점을 둔 말씀의 전례(Service of The Words) 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의 전례(Service of the Table)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말씀의 전례는 당시 회당의 전통에서부터 이어져온 말씀의 가르침으로 볼 수 있고 성찬의 전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초기 기독교 교회의 예배 내용은 그동안 드렸던 구약의 전통과 다른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구약의 예배가 시나산 사건을

1. 역사적 고찰

초기 기독교 교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예배공동체와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드린 예배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회당의 전통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그 흠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했다(막

초대교회 교인들 첫 인사는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예배 중심내용은 예수그리스도 복음... 말씀 성찬으로

1:21-28, 3:1-6, 마4:23, 눅4:15, 16-31, 요 6:59). 사도바울은 전도여행을 할 때 흠어져 사는 유대인들, 즉 거룩한 땅에는 거주하지 않으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하였다(행 13:5, 14:1.17:1,10,17: 18:4,19).

이처럼 이스라엘의 소망과 구원을 전파하기 위한 장소로 회당을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울 뿐만은 아니었다. 아볼로도 예베소에서 그와 똑같은 일을 하였다(행18:26). 바울신학자 랄프 마틴(Ralph P. Martin 1925-2013)은 “유대인의 회당은 그 예배 형태가 기독교의 예배 형태에 영향을 미친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이야기 한다.

가정교회의 예배전통은 사도행전 2장 46-4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 한 최초의 기독교 예배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이 기록을 보면 이들은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이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를 연결해서 오늘날 온라인 예배를 비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무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가정교회 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지 오늘날처럼 한 가족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념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약에서 언급하는 제2의 출애굽 사건, 즉 그의 백성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로 정착되게 되었다.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Robert Eugene Webber, 1933-2007)는 초기 기독교 교회 예배의 기본 구조는 말씀과 주의 만찬에 강조점을 두고 이에 기도와 찬송이 수반되는 2부 구조로 예배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바울신학자 랄프 마틴 교수 또한 초대교회는 찬양, 기도, 교훈이라는 3개의 기본 요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초대교회는 노래 속에 태어났다고 이야기 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을 찬양하는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뜨겁게 찬양하는 공동체였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배송가와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의 내린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교회의 예배 전통이 기초가 되어 중세 서방교회(Western Church)나 동방 정교회(Eastern Orthodox Church) 등이 예배예전(Liturgy)을 만들게 된 것이다. 한편,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천 여 년 동안 발전되어왔던 중세 서방교회의 예전은 초대교회 예배의 본질에서 벗었다고 생각하였다. (15면으로 계속)

월 심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1)(시18:20-21)

하나님께서서는 성도의 의에 따라 상급을 주십니다.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능하다는 고백과 함께 저희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하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비가 올 때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땀부림을 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고비를 넘긴 후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좇아 갚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1)여호와와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2)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전심으로 경외함으로써 심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상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화 심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2)(시18:22-23)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하겠습니까? 1)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다윗은 성령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실 때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 어떻게 행하

셨나를 항상 가까이 하여 배우기를 힘쓴 것입니다. 2)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 23절 “완전하다”는 뜻은 히브리말로 “타땀”이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수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심어야 할까?(시18:24-26)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심어야 하겠습니까? 1)자비함으로 심어야 합니다. 25절 “자비한 자”라는 뜻은 히브리말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마5:7). 2)깨끗함으로 심어야 합니다. 26절 “깨끗함”은 20절부터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깨끗함”이란 히브리말은 “나바르”란 말로 “분리시키다, 쪼개다, 선택하다”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즉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오직 하나님께 나의 전인격이 고장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목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시18:27)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심어야 하겠습니까? 겸손으로 심어야 합니다. 27절 “곤고한 백성”이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마5:3).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늘 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망합니다. 본문에서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고 하셨는

데 교만한 눈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 못되어서 자신이 멸시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시18:28-29)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28절에 다윗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계속 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흑암에 갇히든지 원수들에게 포위되든지 주께서 등불이 되셔서 다 밝히시고 다 몰아내십니다. 29절에도 “내가 주를 의뢰하였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주목할 것은 “With your Help”와 “With my God”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

군과 싸워 이겼고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벽을 뛰어 넘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적군을 이기고 믿음으로 벽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적군에 달리다”는 뜻은 “적군과 싸우다”는 뜻인데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도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너그러게 해결하고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 넘게 되는 것입니다.

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시18:30)

다윗은 오직 말씀 붙잡고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어떠한 실수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직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와 말씀은 정미하다”고 했는데 용광로

에서 연단한 은처럼 순결하고 티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교훈은 순수합니다. 그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돼주셨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9)



와 장애인선교 사역자의 자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장애인선교 사역자는 상향성의 미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받아야



뉴저지밀알이 유엔에서 사물놀이 팀과 함께 공연한 후 기념촬영 했다.

복을 성공, 실패는 저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과 함께함이다. 예수님과 함께해도 실패할 수 있고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적인 성공도 할 수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욥 등은 모두 부자였다. 구원은 결국 내세와 현세의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의 진정한 복은 예수님과 함께함이다. 그러할 때 성공과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있어도 예수님 함께하면 성공한 사람이고 복

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실패는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게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진보의 신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노인과 죄수와 장애인들 같은 사람들을 숨기게 된다.

2. 사역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전해야 한다.

사역자는 예수의 힘을 빌어 더 많은 성공과 업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거나 이루어 놓은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모든 인류의 삶의 진정한 근본인 그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을 알게 하여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을 통하여 무엇을 입증해야만 존재를 인정받는다. 현대인의 불안한 마음을 치료해준다. 예수를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인간 모두가 갈구하고 있다. 일하고, 결혼하고, 경쟁하고, 평화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루어서 사랑받고자 하는 영적 배고픔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건은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수의 사건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은 장애인선교에 필수적이다.

일반 회사에서 직원의 사랑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직원이 사랑이 부족하다 라도 능력 있고 일을 잘하면 훌륭한 직원이다. 그러나 크리스천 장애인 사역자는 그렇지 않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선택사항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필수사항이다. 또한 일반 장애인 사역과 크리스천 장애인 사역의 큰 차이점은 일반 사역은 인간의 사랑,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한다면 크리스천 장애인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과 조직보다 사랑의 가치를 더 두고 있다.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기 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크리스천 사역자는 아니다. 차라리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역자가 낫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사역자들에게 더 많은 훈련과 조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주는 빵이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공허이 없는 전문성을 용서와 하나님의 왕국을 진실 되 못한 것으로 만들 뿐입니다.”

miju92@gmail.com

일반 사역은 인간의 사랑, 법과 제도에 기반 둔 것이라면 크리스천 장애인 사역은 하나님 사랑에 기초해 조직보다 사랑의 가치 더해

장애인 사역자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고 그래서 더 다른 업적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보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장애인 선교가 무슨 특별한 선교가 아니다. 일반 목회나 선교 등등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다. 이 하나님 사랑이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일반 목회나 되는 것이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린이 선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 선교는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목회와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또한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인간은 사랑 받지 않고 줄 수 없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사역자가 어떻게 조건 없이 장애인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야만 한다. 고맙다고 말할 수도 없고, 성장이 일어난 것을 볼 수도 없는 장애인 선교를 낙심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늘 공급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만족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에 어떻게 반응할까?”였다(막 10:45). 이는 더 깊은 만족과 더 깊은 친밀함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을 수가 있다. 사랑을 받은 적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다. 내 필요를 먼저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진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놀라운 사실이 생각난다. 그들은 내게 애써 영향력을 미치려 하지 않았으며 굳이 내 반응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특정한 내적 자유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보면 자기 이상의 존재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자기보다 큰 실체를 가리켰고, 그들의 자유는 큰 실체인 그분 안에서 자랐다. 이렇게 중심이 잡힌 상태, 내적 자유, 영적 독립은 신비한 전염성이 있다.”

우리는 행동하지 않아도 이

미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러면 신자는 행동하지 않는 게으른 존재인가? 아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하는 행동은 더 큰 열매를 맺게 되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다.

제6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고, 믿음으로 일을 하여야 하고, 자신의 상처와 약함으로부터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하며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

1. 장애인선교 사역자는 상향성의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기피하고 숨기는 이유는 그들은 실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고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이 지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신이 깔려있다. 그래서

는 사람이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야망을 염심여기거나 진보와 성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향한 잘못된 야망과 섬김을 위한 참된 야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과, 우리 주위 사람들을 높이려는 것 사이의 차이이다. 문제는 개인 혹은 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향성 자체를 종교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종교로 말미암아 성공은 하나님

...교회 예배와 음악

(14면에서 계속)

그리하여 이 전통을 뒤로한 채 초기 기독교 회당 예배의 전통을 그대로 전수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예전을 만들어 그가 생각하는 기독교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키려 했던 것이다.

초기 기독교의 예배전통은 구약과 신약의 예배전통에 큰 영향을 받고 기본 뼈대가 형성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큰 변화는 예배의 중심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즉 구약의 성취로 인한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중심이 되었고 이 내용을 말씀과 성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도, 찬양이 이루어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1세대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 받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250여년(AD64-AD313년)의 로마 정국의 혹독한 폭정 속에서도 예배가운데 각자의 말은 바 역할

을 충실히 하며 성도의 교제 속에 끈이지 않고 결국 카타콤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본질을 지키며 이어갔다. 그들은 진정 복음으로 인한 소망을 확신하며 모든 조건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한 진정한 예배자들이었던 것 같다. 그것이 그 오랜 세월의 혹심한 핍박 속에서 기도교가 말살되지 않은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그들은 서로 만나면 첫 인사 “그가 살아났습니다!(He is Risen!)”였다고 한다.

이들이 가졌던 부활의 소망과 신앙이 오늘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을 깊이 상고해보자.

iyoon@wmu.edu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5. 나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진노를 불러올 것이다-그대가 자신을 살펴야 하

는 이유는 그대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큰 문제가 안 되어도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셋째, 그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지식을 거스르는 죄를 더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이 알수록 이를 행하기 위한 의지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둘째, 그대는 다른

사람보다 위선의 죄를 더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이 알수록 이를 행하기 위한 의지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셋째, 그대는 다른 사람보다 위선의 죄를 더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대는 죄를 비난하는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넷째, 그대가 죄를 반대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그대의 죄는 더 심각한 배신이 된다.

hyojungyoo2@yahoo.com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라홍채 목사

세미나 안내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인/터/뷰

복음주의장로회 신임 총회장 신원규 목사

“생명의 복음 가득 담긴 총회로 세상에 빛 되도록”

“목회하는 연수가 더할수록 주님 앞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한 사람을 25대 총회장으로 선출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대 회원들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24일과 25일 중가주 비숍에서 열린 제 25차 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신원규 목사(좋은마을교회 담임)은 40여년간 목회인생을 종합 정리할 시기에 총회장을 맡기신 건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어서 된 것 같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총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임총회장으로 총회임기 동안 어떻게 복음주의장로회를 이끌어 갈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 목사는 생명의 복음이 가득 담긴 총회로 세상에 빛이 되도록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저의 목회여정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교계단체장을 지냈을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많은 경우 목사님들의 사역이 힘들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힘들어지는 원인 중에는 목사로 부름 받았을 때 갖게 된 소명이 흔들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소명을 함께 회복해 가는 총회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는 또한 소명의식과 더불어 동역하는 총회, 선교의 열정과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아니냐 좌우한다고 봐요. 총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동역하면 떠오르는 여러 케이스가 있잖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대표로 들 수 있을 텐데요. 저희

반응은 어땠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원규 목사는 “모두 반대 하더라”라며 웃으며 말했다.

“목회 후반기에 무슨 총회장을 하냐고 야단이었어요. 그런데 총회장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함께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의 특징이 총회개최 장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비숍에서 총회개최가 된 이유에 대해서 신 목사는 총회에 진지하게 임하고 성실한 대화와 회의를 위해서라고

정에 대해 결정이 되었는데요. 목회자와 교회가 더욱 성숙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총회기간 중 첫날 성찬식과 둘째 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는 업영민 목사님이 ‘목회와 기도’라는 주제로 그리고 박성민 박사님이 ‘기독교윤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총회회원 모두에게 큰 은혜와 영적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총회 때마다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 목사는 “총회는 단순



신원규 목사

“총회장은 총회로써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에 대해 신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기록하고 존귀하다. 끊임없이 목회자의 삶에 점검과 회복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목회를 배우며 성숙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멈추어 버린 발걸음을 다시 주님의 목회를 향하여 걸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목회를 성경에서 찾는 일이 우리 삶에서 행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목회철학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목회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때로는 고민하는 것이 성령님이 원하시고 은혜의 목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회개최를 위한 모임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 회복과 바른 신앙과 신학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총회가 총회로만 열리는 것보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총회일

하는 질문에 신 목사는 “총회가 교회이며 교회가 총회라고 생각한다. 복음이 가득한 총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총회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성스러운 총회라고 생각되며 세미나 역시 이러한 목적으로 열게 될

(박준호 기자)

열정적 선교, 개척교회 재정지원, 목회자 긍지와 자부심 갖기
하나님 나라 회복과 바른 신앙/신학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길

총회가 동역의식을 갖고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와 총회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정과 국내 개척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목회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총회장이 됐을 때 가족들의

말했다. 그는 특히 성찬식과 건강한 목회를 위해 준비한 세미나가 총대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총회가 총회로만 열리는 것보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총회일

한 회의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 회복과 바른 신앙과 신학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총회가 총회로만 열리는 것보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총회일

나는 질문에 신 목사는 “총회가 교회이며 교회가 총회라고 생각한다. 복음이 가득한 총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총회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성스러운 총회라고 생각되며 세미나 역시 이러한 목적으로 열게 될

책 소개

저자 정현(탄자니아 선교사)

“안개꽃 이야기”



은퇴하고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정해진 선교사와 부인 정현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안개꽃 이야기”가 최근 출판사 프로방스에서 출간됐다.

“한 부부의 삶에 켜켜이 스며있는 비범한 주님의 이야기”라는 부제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진솔하게 썼다. “여보,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2016년 2월 생일을 앞둔

남편의 느닷없는 질문 후 조기 은퇴를 하고 자그마한 은퇴비로 2017년 탄자니아로 파송받아(CLWMF, 대표 김평욱)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부부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

“성경말씀 그대로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내게 하셨

다. 더욱 우리의 내면에 간직해두신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

‘한 부부의 삶에 켜켜이 스며있는 비범한 주님의 이야기’

다”는 저자의 고백이 책 곳곳에 담겨있다.

저자는 또 “안개꽃 이야기”라고 책 제목을 붙인 것에 대해 탄자니아에서 어느 결혼식

에 갔던 이야기로 소개한다. 평소에는 화려한 옷과 멋진 헤어스타일을 즐기는 현자인 둘이 결혼식에는 수수하게 차려입고 온 것에 대해 의문이 들어 몰랐더니 신랑 신부를 돌보이게 하려고 결혼식에는 가꾸지 않고 온다는 대답이었다고. 그 때 들었던 생각, 우리

삶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꽃을 돋보이게 하는 ‘안개꽃 선교’여야 한다는 생각이 책 제목으로 이어졌다고 프롤로그에서 밝혔다.

책은 1장 만남, 2장 안개꽃 이야기, 3장 내 영혼, 증인이 되다, 4장 밤에 핀 무련처럼, 5장 하늘의 두레박, 6장 재대신 화관을, 7장 타작마당, 8장 감동, 하늘 맛이다, 9장 삶의 흔적, 10장 한 발로 추는 땀 등 10개의 주제 아래 소제목이 단 단편 이야기들이 연결돼

있다. 저자 정현 선교사는 환영받지 못한 태어남,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가슴 깊이 박혀있던 상처가

선교지 어린이가 아니시야를 보며 자신을 떠올리고 치유 받는 체험도 했다.

또 신앙적 의를 앞세우며 살았던 삶이 남편과 자녀를 힘들게 했던 점들을 고백하며 젊은 날에는 젊은 대로,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의 헌신은 또 그대로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가는 것도 담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이 이야기책의 수익금은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 전액 사용된다. 권당 20달러.

▲구입연락처: (646)270-9771 (유원정 기자)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 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p>믿음과 0.2%의 가능성</p> <p>김영길 클란출판사</p>	<p>돌파하는 믿음</p> <p>밥 소르기 스텝톤</p>	<p>간절한 매달림</p> <p>토미 테니 규장</p>	<p>세상이 흉내낼수 없는 기독교</p> <p>제라드 윌슨 생명의 말씀사</p>	<p>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p> <p>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p> <p>피터 스카지로 두란노</p>
----------	---	-------------------------------------	------------------------------------	--	--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